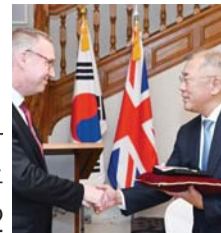


15일 Market Index			
↑ 코스피	2486.67	↑ 코스닥	809.36
	(+53.42)		(+15.17)
↓ 금리 (연이율)	3.744	↓ 환율 (원/달러)	1300.80
	(-0.113)		(-28.10)

정의선 회장  
대영제국회장 수훈  
02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등록번호 서울 가50111 독자센터 (02)721-9861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2023년 11월 16일 목요일

## 오산·용인·구리 등 5곳에 신규택지... 8만호 들어선다

국토부,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 확충 인근도심 등과 연계 시너지 극대화 공원녹지, 지구면적 30% 내의 확보 선교통-후입주 실현 위해 교통개선

정부가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구리토평2, 오산세교 등 전국 5개 지구를 새 택지지구로 지정하고, 8만호 규모를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구리토평2(1만8500가구), 오산세교3(3만1000가구), 용인이동(1만6000가구), 청주분평(9000가구), 제주화북2(5500가구)를 신규택지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구리토평2는 한강변이면서 서울 동부권과 맞닿아 있어 수도권 주민들의 주택 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오산세교3은 화성·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중심부에 위치하고 KTX(2025년 개통), GTX-C(공약사항) 등 철도교통을 기반으로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다.

용인이동은 지난 3월 발표한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에 인접해 IT 인재들의 배후 주거지 공급이 필요한 지역

이다. 청주분평2는 청주오송의 산업단지 신설, 반도체 공장 증설 등 일자리와 함께 청주시 인구 증가세로 주택수요가 풍부한 지역이다. 제주화북2는 제주 인구가 최근 10년간 15%나 증가한 것에 비해 공공주택 공급이 적어 계획적인 택지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다.

모든 신규택지 지구는 인근의 기존 도심, 택지지구, 산업단지 등과 연계개발해 기존에 부족했던 도시 기능과 인프라를 보완·분담함으로써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완성도 높은 통합 자족생활권으로 조성한다.

자연과 공존하는 자연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공원녹지를 지구 면적의 30% 내외로 확보한다. 지구 전체에 걸쳐 하천 등 친수공간과 녹지가 도로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공원녹지를 선형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저출산 문제에 대응해 지구 내 어린이집, 아이돌봄센터 등 보육시설, 도서관 등 문화시설, 병원·학원·카페 등 지원시설이 한곳에 집적된 '아이돌봄 클러스터'를 조성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개발한다.

국토부는 모든 지구가 교통이 편리한 도시가 되도록 도로, 대중교통 노선 등을 신설 확장해 교통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선교통-후입주' 실현을 위해 광역교통 개선대책은 신규택지 발표 직후 수립에 착수해 기존보다 최대 1년 앞당겨 지구지정 후 1년 내 확정할 예정이다.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공택지 공급으로 수요가 있는 곳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해 국민 주거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kdh@metroseoul.co.kr



메트로경제 '2023 감사 리더스 씨앗' 성료

메트로경제가 주최하는 '2023 감사 리더스 씨앗' 두번째 모임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동 페어몬트 엠베서더서울호텔 7층 아잘레아홀에서 열렸다. 은행을 비롯 증권사, 보험사, 자산운용사, 여신전문회사 등 주요 금융회사의 감사 및 감사 관련 부사장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이 '한국경제 위기인가'란 주제로 강연을 했다. <관련기사 L4면>

/손진영 기자 son@

## 美 물가 둔화에 긴축종료 기대감 국내증시 기관·외인 '쌍끌이 매수'

코스피 2.20%, 코스닥 1.91% 상승

미국 물가 상승률 둔화 소식에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국내증시가 상승했다. 기관과 외국인투자자들은 유가증권과 코스닥 두 시장에서 대량의 쌍끌이 매수세를 보여 달라진 시장 분위기를 반영했다.

15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3.42포인트(2.20%) 상승한 2486.67에 장을 종료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홀로 1조6120억원을 순매도했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423억원, 1조915억원을 순매수했다. 이날 기관의 순매수액은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많았고, 개인의 순매도액은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컸다.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도 외국인은 6333억원을 순매수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업종별로 보면 보험업(-1.26%), 음식료업(-0.77%)를 제외한 전 업종이 상승했다. 운수장비(3.70%), 서비스업(3.39%), 기계(3.38%) 등이 크게 올랐다. 상승종목은 752개, 하락종목은 143개, 보합종목은 41개로 집계됐다.

시가총액 10개 종목에서는 전 종목이 상승했다. 기아(4.22%), 현대차(4.17%), 네이버(3.47%) 등의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코스닥지수는 전 장보다 15.17포인트(1.91%) 오른 809.36에 마감표를 찍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개인이 홀로 1770억원을 팔아치웠고, 외국인은 1603억원, 기관은 132억원을 사들였다.

업종별로는 전 업종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섬유·의류(-1.27%), 방송서비스(-0.33%) 등이 하락했다. 통신서비스(3.96%), 반도체(3.30%), 유통(2.83%) 등이 큰폭으로 올랐다. 상승종목은 1268개, 하락종목은 294개, 보합종목은 67개로 집계됐다.

시가총액 10개 종목 중에서는 포스코 DX(-3.40%)를 제외한 전 종목이 상승했다. 알테오젠(10.38%), 셀트리온제약(9.46%), 레인보우로보틱스(4.90%) 등의 상승폭이 컸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외국인의 투자심리 개선이 현·선물 동시 순매수로 나타나며 국내증시 상승을 견인했다"며 "특히 1만건의 계약 이상의 선물 순매수에 힘입어 기관의 차익거래 성 순매수까지 더해지는 모습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8.10원 내린 1300.80원에 마감했다.

/원관희 기자 wkh@

## 尹대통령, 美 APEC 참석차 출국... 다자무역 등 논의

정상회의 첫 번째 세션 참석 청정에너지 전환 기여 등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2박 4일 일정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서울공항에서 김건희 여사와 함께 순방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 부부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장

호진 외교부 1차관,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의 배웅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자마자 동포 간담회를 첫 일정으로 APEC CEO 서밋 기조연설, 투자신고식 참석 등 현지 일정들을 소화한다.

윤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서 다자무역체제의 복원을 역설하고, 각국 정상들과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첫 번째 세션에 참석해 청정에너지로의 전환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대한민국의 기여와 국제연대 방안을 강조할 계획이다.

다음날인 17일에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두 번째 세션 '리트리트 회의'에 참석해 각국 정상들과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는 경제 구축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2면에 계속>

/박정익 기자 pathfinder@

##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윤 "한국, APEC 의장국 준비하며 기후위기·디지털 격차에 기여 강화"  
▲ "尹 신호 받았다"... 인요한, 중진 결단 압박 /사진 뉴스스

▲ '비명' 5선 이상민 "국힘 입당 배제 안해"  
▲ 민주 의원들, KBS 프로그램 보이콧 줄 선언



▲ 합참의장 후보자 주식거래·골프 논란에 여야 질타 쏟아져 /사진 뉴스스  
▲ 輿論의 압박에 주류 "분란만 일으켜"... '용산발 메시지' 논란까지

# “정주영 이후 46년만”... 정의선, 대영제국 지휘관훈장 수훈

〈현대그룹 선대회장〉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 찰스3세 국왕 대신 英대사가 전달

1977년 정주영 현대그룹 선대회장이 받았던 대영제국훈장을 손자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수훈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14일 서울 중구 주한 영국 대사관에서 열린 대영제국훈장 수훈식에서 정 회장이 ‘대영제국 지휘관 훈장’(CBE)을 수훈했다고 15일 밝혔다. 찰스3세 국왕 즉위 이후 이 훈장을 받은 한국인은 정 회장이 처음이다.

이날 찰스3세 국왕을 대신해 폴린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가 정 회장에게 훈장을 전달했다.

대영제국훈장은 영국 사회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거나 정치, 경제, 문화예술, 기술 과학,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이룬 인물에게 수여된다. 영국 정부 기관이 후보를 추천하고, 영국 왕실의 심사를 거쳐 수훈자가 선정된다. 정 회장은 친환경 저탄소 모빌리티 보급 확대와 함께 영국 대표 미술관 테이트모던 장기 후원을 통한 문화예술 증진 등 한국과 영국 간 경제·문화 협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정 회장의 이번 훈장 수훈은 할아버지이자 현대 창업주인 고 정주영 선대회장이 수훈했던 훈장과 동일해 의미를 더한다.

앞서 정 선대회장은 양국 간 무역증진 등에 기여한 공로로 1977년 ‘대영제국 지휘관 훈장’을 받은 바 있다. 정 선대회장은 1970년대 초 영국 엔지니어링



정주영 선대회장이 1977년 주한 영국 대사관에서 대영제국 지휘관 훈장을 수훈하고 있다.

## 친환경 저탄소 모빌리티 보급 韓-英 경제·문화협력 강화 공로

### “정 회장, 통찰력 있는 경영에 주목 영국-현대차 파트너십 대폭 향상”

및 조선사와 기술 제휴를 맺고 영국 바클레이즈은행에서 차관을 빌려 울산에 조선소를 건설했다. 조선소도 없이 울산 백사장 사진만으로 선박을 수주한 것은 정 선대회장의 과감한 도전정신을 상징하는 유명한 일화로 알려져 있다.

정 선대회장은 당시 한·영경제협력위원회 한국 측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크룩스 대사는 “정 회장은 동일한 훈

장을 받은 선대회장에 이어 통찰력 있는 경영철학과 인간중심의 리더십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영국과 현대차그룹의 파트너십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향상시켰다”고 말했다.

1982년 첫 자동차 수출을 통해 영국에 진출한 현대차그룹은 경제, 문화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10월까지 영국에서 전년 동기보다 8.7% 증가한 17만3000대를 판매해 점유율 9.2%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국 유력 자동차 전문매체들이 현대차와 기아를 ‘올해의 자동차 회사’로 선정하는 등 영국 자동차 시장에 성공적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친환경 모빌리티의 상징인 전기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폴린 크룩스 주한 영국 대사로부터 대영제국 지휘관 훈장을 전달받고 서로 악수하고 있다

차는 같은 기간 2만8000대를 판매하며 테슬라, 폭스바겐그룹에 이어 3위를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표차종인 현대차 아이오닉5가 ‘2022 영국 올해의 차’를 수상하고, 기아 EV6가 영국 유명 자동차매체 왓 카에서 ‘2022 올해의 차’에 선정되는 등 주요 전기차 메이커로 부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영국의 세계적 미술관인 테이트미술관(Tate)을 장기 후원하며 매년 혁신적인 예술 작품 전시를 통해 현대 미술의 발전과 대중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영국에서 열리는 ‘제네시스 스포츠 코티시 오픈’의 타이틀 스폰서로서 스포츠 교류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정 회장은 “대영제국훈장은 현대차

동차그룹이 양국 협력과 우호에 기여한 공헌을 인정받아 받은 것이라 생각한다”며 “현대차그룹은 앞으로도 미래 신사업, 문화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관계 강화에 더욱 기여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현대차그룹은 언제나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능하게 하고, 한계를 뛰어넘어 기대 이상의 결과를 이루기 위해 도전해 왔다”며 “현대차그룹의 성취는 뜻을 같이하는 많은 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덧붙혔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 5년간 조선에 7100억... 차세대 선박 점유율 80% 만든다

### 산업부, K-조선 차세대 선도 전략 제조시스템 고도화 등 3대정책 제시 미래 초격차기술 선점에 2000억 투입

정부가 조선산업 미래 초격차 기술 선점 등에 2028년까지 7100억원의 예산을 집중 투자한다. 글로벌 1위 자리를 넘보는 중국을 비롯해, 미래 핵심 선박 기술 확보에 나선 유럽연합(EU)·일본 등 경쟁국 도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차세대 조선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K-조선 차세대 선도 전략’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3대 정책 방향으로 ▲미래 초격차 기술 선점 ▲제조 시스템 고도화 ▲법·제도 인프라 정비를 제시하고, 2028년까지 71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이

를 통해 차세대 선박 점유율을 현재 56.3%에서 8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우선, 탄소 저감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초격차 기술 선점을 위해 향후 5년간 약 2000억원을 집중 투입해 3대 탈탄소 핵심연료(LNG, 암모니아, 수소) 기술 상용화를 추진한다.

자율운항선박 세계 선도기술 확보를 위해 2025년까지 160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대양 3단계(원격제어, 선원 미승선), 연안 2단계 수준(원격제어, 선원 승선)의 상용화를 실현하고, 지능형시스템 성능시험 개발, 규제 샌드박스 등을 활용한 해상실증 등에 나선다.

조선산업을 떠받칠 산업인력 확보를 위해 연간 3000명 이상의 조선분야 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지속가능한 외국인력 수급 시스템 구축을 위

해 ‘연수형 비자(D-4-6)’ 확대 등 비자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외국인력의 사회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향후 5년간 약 1500억원을 투입해 설계·생산 등 디지털 전환(DX)과 로봇 보급을 통해 현재 대비 생산성은 30% 올리고, 공기는 30% 감축한다.

### ◆글로벌 1위 K-조선... 중국 기술격차 축소 등 도전 직면

정부가 이처럼 조선산업 투자에 본격 나선 이유는 국내 조선기업이 과거 불황을 딛고 세계 조선산업을 선도하고 있지만, 중국 등 경쟁국의 거센 도전에 직면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조선기업은 올해 10월까지 수주 실적을 기준으로, 고부가선박의 60%, 친환경선박의 45.6%를 수주하며 세계 조선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국내

수주잔량은 2011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2017년 이후 세계 발주량의 30%대를 점유하며 회복세다.

하지만, 우리 주력선종인 고부가·저탄소 선박에서 중국과의 격차가 축소되고 있고, EU·일본의 기술 확보 등 경쟁국 추격이 심화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우리나라와의 기술격차를 줄이기 위해 주요 조선사 합병을 통한 대형화, 신규투자 등 조선산업 집중 육성에 나선 상황이다.

장영진 1차관은 “글로벌 조선 시장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어 우리 조선산업도 과거 불황을 딛고 재도약을 위한 기회가 크게 열리고 있다”면서 “K-조선이 앞으로도 세계 1위 산업으로 차세대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 경쟁력 강화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

## 노조법 ‘산업 공멸위기’ 대통령에 ‘거부권’ 요구

경총 등 국내업계 단체 총출동

산업계들도 노동조합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여러 산업별 단체들과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업종별 단체 공동성명’을 개최했다.

이번 성명에는 전국 경총과 함께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등 중공업과 화학 등 업계는 물론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ICT융합협회 등 전자 및 ICT와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벤처기업협회 ▲코스닥협회 등 경공업과 운송, 자본시장 업계까지 사실상 국내업계 단체들이 총출동했다.

이날 산업별 단체들은 노조법 개정안이 산업 현장에 공멸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며, 야당을 규탄하고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노조법 개정안 문제도 예상했다. 사용자 범위 확대로 중소기업체가 줄도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며, 파업과 실행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관행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손해배상 청구가 봉쇄되면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김재용 기자 juk@

## 尹, 日 기시다 총리와 첨단기술 협력 좌담회 참석

### 》1면 ‘尹 대통령, 美 APEC’서 계속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글로벌 복합위기 속 다자무역체제의 복원, 역내 공급망 연계성 강화, 디지털 윤리규범 정립을 위한 APEC 협력 필요성과 대

한민국의 역할을 설명한다.

윤 대통령은 17일 오후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스탠퍼드대학교에서 ‘한일 및 한미일 첨단 기술 분야 협력’을 주제로 한 좌담회에 참석한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과 별도의 다자 정상외교를 통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와 북한-러시아 간 군사협력 우려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다자 정상외교

를 통해 경제·안보 협력을 논의하고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요청할 방침이다.

다만,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은 아직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박 4일간의 APEC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윤 대통령은 오는 18일 오후 귀국한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 ‘첨단 삼성’ 연결성·기능추가 vs ‘간단 LG’ 쉽고 안정적 초점

## 가전 혁신, 소프트웨어 승부수

글로벌 가전 시장 양대 산맥,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이제는 하드웨어를 넘어 소프트웨어로 맞붙는다. 자체 운영체제(OS), 타이젠과 WebOS를 미래 먹거리로 보고 전폭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다만 가전 개발 방향성은 정반대로 엇갈리는 모습, 소비자는 취향과 필요에 따라 제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 타이젠, 삼성 가전 허브로

1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14일 열린 ‘SDC 코리아 2023’에서 타이젠 ‘리부팅’을 선언했다.

타이젠은 삼성전자가 개발한 OS다. 한때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등 구글 안드로이드에 대항할 모바일 OS로도 주목받았지만, 결국 갤럭시 워치3를 마지막으로 스마트 TV와 일부 가전에만 탑재됐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타이젠을 결국 포기하지 않겠냐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내놓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타이젠을 완전히 되살리기로 결정했다. 내년부터 출시하는 모든 가전에는 타이젠을 탑재하고,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인 가우스와 빅스비 등을 연동해 가전 ‘허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타이젠을 탑재한 가전은 AI반도체가 없더라도 온디바이스 AI 기능을 장착한 제품에 연결해 수준 높은 성능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온디바이스 AI가 클라우드 방식과 비교해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는 만큼, 최대한 많은 기기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개인화를 위한 충분한 데이터를 모아 최소한의 고성능 반도체로 처리하는 전략이다.

아울러 스크린 경험 확대를 위한 플랫폼으로도 업그레이드를 준비하고 있다. 이미 ‘FAST’ 플랫폼인 삼성TV플러스와 ‘게이밍 허브’를 탑재하며 스마



삼성리서치장인 전경훈 사장이 SDC 코리아 2023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삼성전자

### 삼성

내년, 모든 가전에 타이젠 탑재 가우스·빅스비 연동해 허브 활용 고성능 반도체 사용 오작동 낮춰

트TV는 물론 스마트 모니터와 프로젝터 등에 적용된 가운데, 카메라와 함께 활용하는 피트니스 플랫폼인 ‘스마트 트레이닝’과 ‘굿닥’ 등 원격 진료 서비스를 출시한 바 있다. 내년에는 반려동물 비대면 진료 서비스와 케이팝 콘텐츠 ‘바이브레이 랩’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

### ◆ LG WebOS, 콘텐츠로 ‘선택과 집중’

LG전자도 WebOS를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고 있다. FAST 플랫폼인 LG TV 등 콘텐츠를 앞세워 자사 스마트 TV 뿐 아니라 타사에도 공급을 확대하며 경기 침체 속에서도 수익성을 방어하는데 큰 역할을 해냈다. WebOS 역시 개발 초기에는 모바일 OS였다. 휴렛팩커드(HP)가 PDA용 OS로 활용하던 것을 2013년 LG전자가 인수, 스마트워치와 가전은 물론 자동차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IVI)에서도 OS로 썼다.

LG전자도 한때 WebOS를 가전 전체로 확대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과감하게 정리하고 ‘선택과 집중’을 택했다. 이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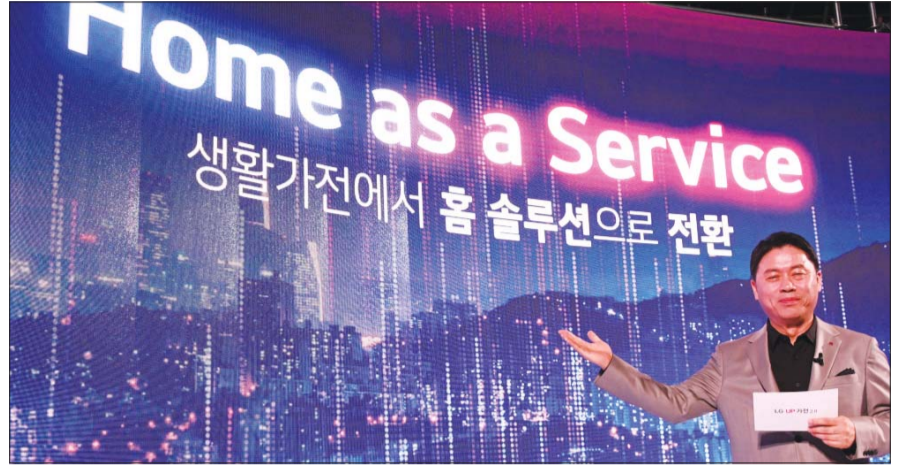
스마트워치와 가전 등에는 WebOS를 적용하지 않던 상황, 지난해에는 IVI 시장을 겨냥해 록소소프트와 합작했던 알루토 사업을 조기 종료했다. 대신 스마트 TV에서 활용하는 콘텐츠 플랫폼으로의 기능을 대폭 확대했다. 2021년 광고와 콘텐츠 데이터 분석 업체 ‘알폰소’를 인수하며 콘텐츠 확대 발판을 마련했고, ‘WebOS 허브’ 업그레이드는 물론 AI 기반 검색 및 추천기능을 강화하는 등 편의성도 대폭 높였다. 앞으로 5년간 1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특히 LG전자는 WebOS를 타브랜드에도 적극 공급하며 새로운 수익원도 만드는 데 성공했다. 전세계 가전 업체 스마트 TV는 물론, 최근에는 제네시스 GV80에도 WebOS를 탑재하며 오히려 포기했던 전장 시장을 다시 공략할 수 있게 됐다. WebOS 점유율이 LG전자 TV 판매량을 훌쩍 뛰어넘는 이유다.

LG전자 관계자는 “WebOS는 이제 OS라기보다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에 가까워졌다”며 “화면을 쓰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 ◆ 가전도 첨단 VS 간단으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서로 다른 OS 운영 전략을 펴면서, 양사간 가전 개발



LG전자 H&A사업본부장 류재철 사장이 UP가전 2.0을 소개하는 모습. /LG전자

### LG

업가전 2.0, 새로운 칩 OS 발표 콘텐츠 플랫폼으로 기능 확대 “무거운 OS 탑재할 필요 없어”

방향성도 뚜렷하게 교차하는 모습이다. 삼성전자가 가전에 더 많은 기능을 추가하려는 반면, LG전자는 가전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모든 가전에 타이젠을 사용하며 ‘초연결성’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온디바이스AI’를 활용해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겠다는 목표다. 로봇청소기인 AI봇과 같이 다른 기기들과 함께 공간을 더 정확하게 인식하고 연동하는 것은 물론, 집에서 획득한 데이터를 온디바이스AI를 활용하면 유출 우려 없이 안정적으로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로 확보하려는 것으로 추정된다.

‘스크린 포 올’ 철학도 타이젠 확대 전략과 맞닿아 있다. 스크린 포 올은 미래에는 모든 곳에 화면이 설치될 것이라는 예측이자 선언이다. 이미 삼성전자는 TV는 물론 냉장고에 패밀리허브 등으로 다양한 가전에 스크린을 적용하고 있다. 이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고성능 OS가 필요하다.

성능면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가전에도 고성능 반도체 탑재가 보편화되는 상황, 타이젠을 OS로 사용한다고 성능 저하나 오작동이 일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가전은 계속 첨단화되고 있고, 이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고성능 OS가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LG전자는 가전이 ‘가전’다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찌감치 WebOS를 가전에서 삭제하고, 지난 7월 ‘업가전 2.0’을 발표하면서 가전을 위한 새로운 칩과 OS를 발표했다. 쉽고 간단하면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그러면서도 기존에 쓰던 MCU와 달리 OTA와 AI까지 실행할 수 있어 가전을 가동하기에는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이미 매트와 HCA 등 IoT 표준도 자리를 잡으면서 스마트홈 플랫폼을 연동해 다양한 기능을 구현 가능하다.

LG전자 관계자는 “쉽고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하는 가전이 무거운 OS를 탑재할 필요는 없다”며 “스마트폰에서 작동하는 플랫폼이 다양한 역할을 하는 만큼, 최신 기능을 구현하는데도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해양자원을 활용한 완도 해양치유센터가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국내 최초 완도해양치유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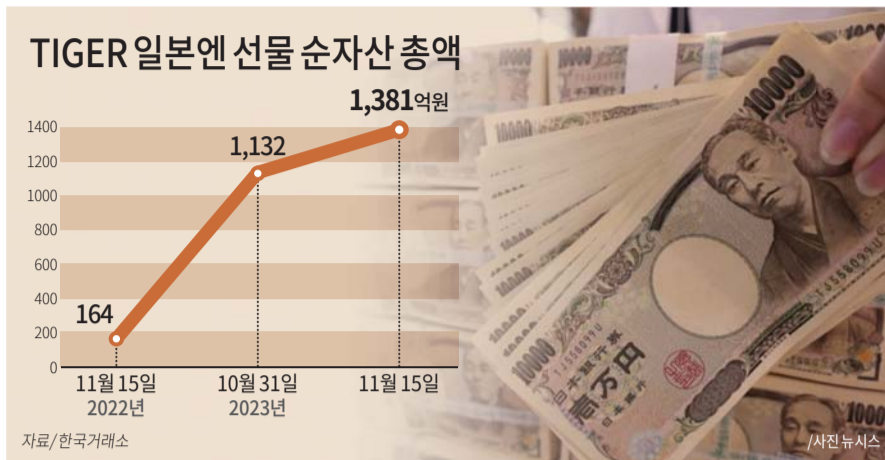
# GRAND OPEN

2023. 11. 24.(금)



# 33년 만에 '수퍼엔저' 임박... '엔화예금·ETF' 투자 열풍

원·엔환율 100엔당 881.07  
환차익 기대한 투자자들 급증  
엔화예금 열흘새 8737억 늘어  
엔선물 총액도 전년비 7배 ↑



100엔당 880원. 일본 엔화 가치가 33년만에 역대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환차익을 기대하는 투자자들 중심으로 '엔화예금' 개설과 '엔화 ETF' 투자가 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엔화 가치 하락이 장기전이 될 수 있는 만큼 최소 투자 기간을 1년 이상 두고, 저점에서 분할 매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15일 서울 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원·엔환율은 100엔당 881.07원을 나타냈다. 지난해 말 100엔당 953.18원을 기록했을 때보다 72.11원 떨어진 수준이다. 달러로 보면 1달러당 150.4엔이다.

엔화 가치가 떨어진 이유는 전 세계가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고 있음에도 일본만이 홀로 금리를 인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난해부

터 소비자물가상승률이 9%까지 치솟자 금리를 기존 연 0.25%에서 연 5.0%까지 올렸다. 반면 일본은 같은 기간 금리를 연 -0.1%로 유지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소비가 늘고 있는데, 공급이 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 상품의 가격이 오르는 것을 말한다. 일본의 경우 지난 30년동안 소비침체가 계속돼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해 1월 0.8%에서 3.0%로 겨우 올랐다. 다른 국가들에 비해 물가상승률이 높지 않은 데다, 금리를 인상해 또다시 물가

상승률이 둔화할 경우 경기침체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 ◆엔화예금·ETF 투자 확대

이에 따라 향후 엔화 가치가 오를 것으로 기대하는 투자자들 중심으로 엔화예금과 엔화ETF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엔화예금 잔액은 지난 9일 기준 1조1090억엔(약9조640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1조엔을 넘긴 이후 열흘 만에 1005억엔(8737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지난 4월 엔화예금 잔액(5789억

엔)과 비교하면 2배가량 증가했다.

현재 신한은행의 신한 밸류업(Valu e-Up) 외화 회전 정기예금은 금리변동기간(1·3·6개월)을 설정하면, 해당 기간에 시장 금리를 반영해 운용한다. 우리은행도 금리변동기간(1·2·3·6개월)을 설정하면, 매 금리 변동 시기마다 금리를 반영하는 우리ONE 회전식 복리 외화예금을 제공하고 있다. 두 상품 모두 금리 변동 시 그동안의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복리로 금리를 지급한다.

엔화 ETF 매수도 늘었다. 국내에서 유일한 엔화 연계상품인 'TIGER 일본엔선물'은 순자산총액이 지난 14일 기준 1381억원으로 지난해 말(1131억원)과 비교해 250억원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말(164억원)과 비교하면 7배 이상 늘었다.

TIGER 일본엔선물은 원·엔간 환율을 기초로 엔 선물지수를 추종한다. 증권사에서 위탁증거금이나 별도의 파생계좌없이 투자가 가능하다.

### ◆엔화 가치 상승 속도 ↓...저점서 분할 매수 필요

전문가들은 엔화 가치 하락이 지속될

수 있는 만큼 단기수익화를 피하기 보다 저점에서 분할매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엔화 가치가 상승하기 위해선 미국의 금리인하로 전환하거나 일본이 금리인상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미국의 경우 장기 고금리 상황이 지속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고, 일본은 과도한 변화를 지양하는 입장이다.

KB국민은행 문정희 자본시장영업부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내년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때 일본은 금리를 올릴 여지가 있다"며 "엔화가 과도하게 저평가 되어 있다는 점에서, 반등가능성은 높지만 장기적으로 일본 경제 펀더멘털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기대수익률은 높게 예측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중 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부 이코노미스트는 "엔화는 일본은행의 정책 전환이 뚜렷해지기 전까지는 약세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며 "향후 엔화 가치는 점진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만큼 저점에서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누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 '전 사업 원점 재검토' 나선 카카오... 계약재 속 경영쇄신 될까

배재현 대표 구속에 독과점 논란 등 비상경영 단계 인식, 새신작업 작수 외부 감사 '준법과 신뢰위원회' 구성



카카오 판교 아지트

창립 이래 최대 위기에 봉착한 카카오가 경영 쇄신안을 내놓은 가운데 반등의 신호탄인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최근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모든 사업을 원점 재검토 하겠다고 밝히면서 경영진 교체 카드를 꺼내들 전망이다. 다만, 시세조종 의혹으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구속된 데 이어 계열사 독과점 논란 등 계약재에 휩싸이면서 우려의 시선도 커지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건영)는 지난 13일 배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카카오 법인과 함께 기소했다. 배 대표는 지난 2월 SM에 대한 기업지배권 경쟁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

트너스와 공모해 총 2400억여원을 투입해 SM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인 12만원 이상으로 상승·고정시키려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관련된 대량 보유 보고의무(5%룰)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여기에 카카오가 인수합병을 통해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했다는 논란이 커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도 제도에 나섰다. 공정위는 전일 기업결합 심사 방식을 현대화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무분별한 플랫폼의 몸집 불리기를 막기 위해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한 기업결합 심사 기준을 마련한 것.

카카오모빌리티의 독과점 논란이 집중 조명되면서 수수료 개편의 물론 기업공개(IPO) 계획도 무산될 전망이다. 최근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의 수수료율 5%에서 3% 이하로 낮추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은데 이어 배차시스템의 개편을 예고했다.

이에 카카오 경영진은 현 상황을 '비상 경영 단계'로 인식하고 지난달 30일부터 매주 월요일 회의를 열고 새신작업에 착수했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전날 제3차 공동체 비상경영회의에 참석하면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 4단체는 협의체를 구성해 오는 12월 31일까지 ▲가맹택시 사업 구조 변경 ▲수수료 수준 현실화

▲택시 배차 문제 개선 등 3가지 쟁점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카카오는 외부 감사기구인 '준법과 신뢰위원회' (준법위)도 구성했다. 위원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주요 경영 내용에 대한 점검을 받는다 는 목표다.

실제 카카오는 이날 준법위 1기 위원 명단을 이날 공개했다. 위원회는 김소영 위원장을 포함해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카카오와 독립된 외부 조직으로 설립되며, 관계사의 준법감시 및 내부통제 체계를 일신할 수 있는 강력한 집행기구 역할을 하게 된다.

문제는 수수료가 3% 이하로 떨어지면 회사의 핵심 사업인 택시 부분의 수익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의 IPO까지 무기한 연기되며 증권가에서는 카카오의 눈높이를 줄줄이 하향하고 있다.

카카오 주가는 올해 들어 12.71% 하

락했다. 시가총액은 지난해 26조5000억 원에서 현재 20조6000억 원 수준으로 급락하면서 코스피 시가총액 순위는 16위로 밀렸다.

다만, 계약재 속에서도 카카오의 실적은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다. 카카오의 3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140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 감소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2조1609억 원으로 16.3% 증가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카카오에 대해 단기 매수를 추천하며 목표주가는 4만5000원을 유지했다. 강석오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비용 통제 전략은 가시화되고 있으나 이익 기여도 높은 부분들이 산업 환경상 단계에 가파른 회복과 성장을 보이긴 어렵다"며 "향후 고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신규 사업 부문이 불확실하고, 사법 리스크도 해소되지 않아 투자 의견을 유지한다"고 분석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

## '쉬웠음' 청년 41만명... 정부, 노동시장 유입에 1조 투입

추경호 부총리 '비상경제장관회의' 인구 감소 속 잠재성장률 저하 우려 단계별 정책으로 노동 이탈 최소화



(사진)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를 촉진하기 위해 1조 원에 달하는 정책자금을 책정했다. 취업할 능력이 있음에도 일 하지 않는 '쉬웠음' 인구가 20·30대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난 데 따른 고용 촉진 방안이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청년 '쉬웠음' 인구는 매월 평균 41만4000명으로 전체 청년인구에서 4.9%를 차지했다. 지난 2010년대 초반 전체 청년 대비 2%대 수준이던 '쉬웠음' 인구는 코로나 19 여파로 2020년에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하다 올해 다시 증가로 돌아섰다.

정부는 '쉬웠음' 청년의 상당수가 구직 의욕도 높고 직장 경험이 있는 이직자들이 많지만 적성 불일치, 쉬웠음 기간 장기화 등으로 구직 의욕이 낮은 경우도 다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재학·재직·구직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지원해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탈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사업에 9900억 원 안팎을 투입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인구가 줄

어드는 상황에 청년의 비노동력화로 노동 공급이 줄면 잠재성장률 저하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우선 재학 단계에서는 올해 12개 대학에서 시범 운영 중인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내년에 50개교로 확대한다. 또 대학 일자리센터를 통해 인근 직업계·일반계 고교 학생 중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을 대상으로 진로 상담과 경력개발 경로 등을 마련해주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신설할 예정이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 경험 기회도 확대한다. 민간·공공 부문 청년인턴 규모를 7만4000명 규모로 확대한다. 아울러 신기술 인재 양성 사업인 K-디지털 트레이닝 등 기업 수요 기반의 첨단 인재 교육을 강화하고 국가기술자격 응시료도 일부(50%) 면제한다.

고용부 등은 재직 중인 청년을 상대로는 초기 직장 적응을 돕는 '온보딩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생활균형 직장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업에 재택 근무 등 유연근무 관리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또 기업이 직원들의 실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1인당 장려금 3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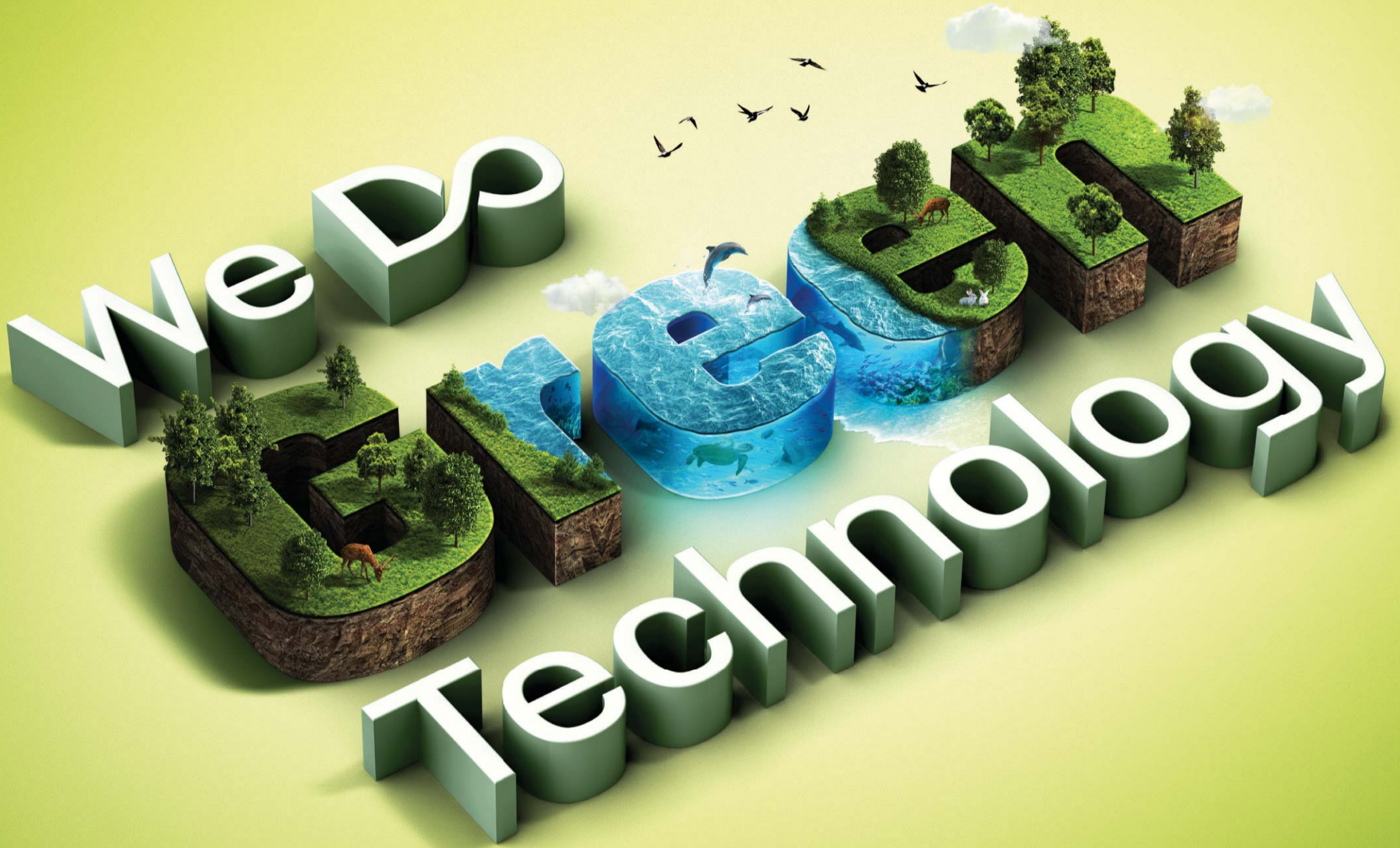
/세종=김연세 기자 kys@



2030 부산세계박람회유치  
SK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더 나은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한 행동,  
World EXPO 2030 BUSAN의 시작!

WAVE



# 건강한 지구를 위한 첨단 기술의 노력

## SK하이닉스가 앞장서겠습니다

- 친환경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위한 SCC\* 멤버 가입
- 유해물질 관리 역량을 인정하는 IECQ QC 080000\* 인증 획득
- 탄소배출 저감 제품군에 수여하는 탄소발자국 인증 획득
- 반도체 폐기물 감축을 실현하는 SSD 재활용 활동
- 멸종 위기 생물 보호를 위한 생물다양성 경연 개최

\*SCC (Semiconductor Climate Consortium) : 반도체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결성된 글로벌 협의체  
\*IECQ QC 080000 : 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 의해 발효된 유해물질 관리 국제표준

We Do Technology  
첨단기술의 중심,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與野, R&D 예산 둘러싼 여론전 공방

# “신성장동력 발굴 우선” vs “해괴한 일... 복원 약속할 것”

국민의힘 ‘연구현장 소통간담회’ 젊은 연구자 등 미래세대 의견 수렴 민주당, 대전서 현장 최고위원회의 이재명 “성장발전 토대, 과학기술” 野 과기위 예산소위서 단독 증액 與 반발하며 예산안 의결 직전 퇴장

여야가 15일 대폭 삭감으로 논란이 된 2024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둘러싸고 여론전 공방을 벌였다. 연구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거나 국회에서 예산안을 두고 충돌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미래세대 위한 R&D 예산 관련 연구현장 소통간담회’를 열고 젊은 연구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실제 연구 현장에 있는 젊은 연구자 등 다양한 미래세대를 중심으로 내년도 R&D 예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자리에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함께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치열하기 짝이 없는, 무한 경쟁이 벌어지는 이 세계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우수하고 도전적인 연구에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맘껏 연구하는 토대를 만들어 줄 때 우리의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가운데)이 15일 오후 ‘국민의힘, 미래세대 위한 R&D 예산 관련 연구현장 소통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15일 오후 대전 유성구 기초과학연구원(IBS)을 찾아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밝은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연구개발에 무한 투자를 하면 좋겠지만 쓸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됐다. 더욱이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아 나라 살림도 허리띠 졸라매기가 불가피하다”며 “비효율적 예산이나 불필요한 지원은 줄여야 하고 대신 미래를 위해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혁신동력을 키워 줄 연구개발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취지도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줄여서 기초원천기술 개발에도 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하는 연구자들에게 더 많은 투자를 하자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실제 R&D 예산 편

성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면서 “특히 과학기술연구 현장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국민의힘은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듣고 R&D 예산 삭감에 따른 부작용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대전에서 열었다. 연구기관이 많은 대전에 방문해 R&D 예산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함이다. 당 지도부는 정부의 R&D 예산 삭감을 비판하면서 R&D 예산 복원을 약속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대전시 중구대전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첨단 과학시대, 새로운 4차 산업혁명시

대에 과학기술 투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그런데 무슨 생각에선지 R&D 예산을 대폭 삭감해 젊은 연구자들이 연구직에서 쫓겨나가거나 생계 위협을 겪는 황당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진다”고 비판했다.

이대표는 “결코 21세기 선진 경제강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해괴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주당이 반드시 R&D 예산을 복원해서 국민 걱정거리를 털어드리고 젊은 연구자들 희망도 꺾지 않고 대한민국을 지속 성장발전할 토대를 갖추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에는 기초과학연구원(IBS) 중이온가속연구소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성

장과 발전에 가장 핵심적인 토대는 역시 과학기술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끊임 없는 연구개발 투자가 이뤄져야 대한민국의 미래도 있고 지속적 성장, 발전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예산 심의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여야는 국회 내에서도 예산안을 두고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단독으로 R&D 분야 예산을 증액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과기위 예산소위에서 첨단 바이오 글로벌 역량 강화 항목 등 1조1600억원을 감액했고, 이를 R&D 예산으로 재편해 과학기술계 연구원 운영비와 4대 과학기술원 학생 인건비 항목 등을 2조원 증액 의결한 뒤 “윤석열표 R&D 삭감을 되돌렸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예산안 의결 직전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핵심 R&D 사업을 칼질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소위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도 독단적인 행태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민주당이 처음부터 여야 합의로 예산안을 의결할 의지가 있기는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 국민의힘, ‘메가시티’ 조성에 단계적 편입방안 검토

뉴시티특위-오세훈 시장 만나 6년~10년간 자치권·재정중립성 보장 농어촌 특례 전형 폐지도 5년~6년 유예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회’(뉴시티특위)는 서울과 인접 도시를 합치는 ‘메가시티’를 조성할 때 해당 지역의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완충기간을 6~10년 정도 두고, 농어촌 특례전형 폐지도 5~6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뉴시티특위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서울시장에서 만나 김포 등 인접도시들의 서울 편입에 대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장(가운데)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장 시장 집무실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면담에 앞서 오 시장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

오 시장은 이날 조경태 뉴시티특위 위원장에게 “갑작스러운 편입으로 인한 지역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6~

10년 간 기존 자치권과 재정중립성을 보장한 완충기간을 두는 단계적 편입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이기 때문에 현행 제도 아래에서 편입되는 지자체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국고보조율도 다른 광역지자체 대비 10~30% 낮게 적용받는다.

또 경기도 산하 시장이 서울 구청장으로 지위가 바뀌면 도시계획수립권 등 14개 분야 42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오 시장은 이런 점을 감안해 자치구가 아닌 ‘자치시’로 편입시켜 행정·재정적 유불리가 없도록 하고, 6~10년 지난 뒤 단계적으로 ‘서울 자치구’로의 완전한

통합을 꾀해야 한다고 제시한 것이다.

오 시장은 “수도권 인접도시의 급격한 편입이 이뤄질 경우 성공적인 통합을 달성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특별법에 한시적인 행정체계 특례와 재정중립성 확보와 관련된 방안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국가경쟁력을 가진 나라들은 메가시티를 10년 전부터 구체화시키고 실천해내고 있다. 여야 대선 주자들의 공약이기도 하다”며 “야당은 뭉치 부리듯 어깃장을 놓는 그런 행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국가발전과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이런 행위에 여야가 따로 있겠냐”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왜 메가시티를 하고 도시를 재편해야 할지에 대해 대국민 설득과 설명을 당에서 대대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면담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시장의 제안에 대해 “아주 좋은 생각이고, 큰 충격없이 해당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서둘러 완전체를 만드는 것보다는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담아낼 필요가 있다”며 “1~2년으로 할지, 5~6년으로 할지 이런 것은 쟁점사항이고 충분히 해당 지자체와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포 등 도농 복합도시에 적용되는 대입 농어촌 특례 전형 폐지도 5~6년 유예함으로써 해당 지역 수험생들의 불이익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서예진 기자

## 민주당 의원 30명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즉각 추진해야”

“국민께 선의의 정책 경쟁 약속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내년 총선에서 위성정당의 난립을 막기 위한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탄희·김두관·김한규·이하영 의원 등 민주당 의원 30명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직

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른바 ‘위성정당 방지법’으로 불리는 법안은 현재 5건이 계류 중이다.

이들은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과 기득권 정치라는 낡은 정치를 깨고 국민주권주의에 부합하는 진정한 민주정치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다”며 “구체적으로 표의 등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 개혁으로, 국민에게 제3의 선택권을 돌려 선의의 정책 경쟁을 가능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렇게 비례대표제를 왜곡하는 위성정당을 금지하겠다고 선

언했다”고 말했다.

이어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목소리는 국민의힘의 비겁한 변명일 뿐”이라며 “사표를 대거 양산하고, 표심을 왜곡해 의석을 몇 석이나 늘려보려는 꿈수다. 무엇보다 내년 총선에서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민주적 제도로는 승리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민망한 속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증오 정치와 반사 이익구조라는 낡은 정치를 깨는 것이 가장 좋은 총선 전략일 수 있다”고 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 “혁신위, 정제되지 않은 발언 바람직 안 해”

김기현 “지도부, 총선 지휘해 나갈 것”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인요한 혁신위원회’에 대해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그것이 반복되거나 혼선을 일으키는 모습은 혁신을 위해서도, 당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광복 100주년’의 꿈 G3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 세미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입장을 밝혔다.

그는 ‘2호 안건과 관련해 혁신위 전체량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혁신위가 당 체질을 개선하고 당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해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당연히 존중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총선은 종합 예술 작품이다. 단편 예술 작품이 아니라 종합 예술 작품이니만큼 당을 중심으로 지도부가 총선을 종합 예술 차원에서 잘 지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서예진 기자



수험생 여러분~  
**등등하게**  
**더블버거**  
**먹고 힘내세요!**



**32%**  
**할인**

**수능 만점팩 ★★★★★**

더블 데리버거+더블 치킨버거+양념감자+콜라(R) 2잔

~~14,600원~~ **10,000원**

11.13(월) ~ 11.17(금) 10am~10pm

# 은행 '상생금융' 부족하다는 당국... '횡재세' 내야 끝나나

尹 대통령 '은행 종노릇' 발언 후 5대 금융 '상생금융안' 발표에도 이복현 등 당국 수장, 비판 지속 담합 우려에 비공개 간담회 취소



신한금융, KB금융, 하나금융, 우리금융, 농협금융 본사 전경. /각사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주문으로 은행들이 상생금융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당국은 부족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오는 16일 추가 상생금융방안을 내놓아야 하는 은행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일각에선 '횡재세'를 내야 '은행패러기'가 끝난다는 말까지 나온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그룹은 오는 16일 금융당국과 간담회를 앞두고 상생금융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 종노릇" 발언 이후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상생금융 자체 방안에 부족하다고 비판했고, 은행권은 다급히 상생금융 방안을 내놓았다.

하나은행은 지난 3일 이자 캐시백, 서민금융 공급확대 등으로 1000억원 규모를 지원, 신한금융은 지난 6일 소상공인·자영업자·청년 등 금융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105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국내 주요 은행들이 1000억원의 상생금융안을 내놨지만 금융당국 수장들은 부족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상생금융 방안에 대해 "은행이 금리 쪽으로만 수익을 내니 서민 고통과 대비해 사회적 기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 것이고 횡재세도 그 맥락이다"며 "은행

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많은 국민이 동의하고 있다"고 압박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역시 지난 6일 "어떤 '혁신'을 했기에 올해 60조원의 이자이익을 거둘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리스크 관리와 시장분석 능력이 있는 은행들이 소비자한테 (금리 부담을) 다 전가하는 구조는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6~7일 상생금융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당국 수장의 발언으로 일정을 연기했다. 우리금융과 NH농협금융 역시 발표를 최대한 미루고 정부 의중을 파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융당국과의 간담회를 앞두고 지난 13일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5대 금융지주와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하려고 했지만 취소됐다.

'독과점'과 '종노릇' 등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지원 규모와 방향성 등을 조율해 담합 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오는 16일 간담회에서 금융그룹들이 코로나19 이후 벌어들인 이자 이익의 일정 비율을 기부나 출연 형태로 내놓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마련된 재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한

(갈아타기)과 일부 담감, 전세 사기 피해자 대상 금융지원 등에 사용할 수도 있다.

다만 이런 방안에도 결국 '횡재세'를 내야 '은행패러기'가 끝날 것이라는 의견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 당국에 입맛에 맞게 상생금융안이 처리되어도, 고금리 기조가 지속 될 경우 이자장사 비판과 상생금융 시즌3가 결국 나오기 때문이다.

은행 고위관계자는 "정치권에서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금융당국 역시 적극적인 반대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 횡재세를 내야 모든 것이 끝난다"며 "상생금융 방안 역시 상반기 10조원에 달하는 시즌1을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했는데 또 다른 방안을 내놓으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들의 방안보다는 애초에 정부와 당국이 원하는 정답지를 공개하는 것이 질타를 덜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 현대건설, 유럽 최대 에너지 기업과 협력

RWE와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 해상풍력발전·그린수소 공동개발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왼쪽)과 스벤 우테르필렌 RWE CEO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현대건설

현대건설이 유럽 최대 에너지 기업과 손잡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확장에 나선다.

현대건설은 지난 14일 서울 중로구 계동에 위치한 현대건설 본사에서 알더블유이 오프쇼어 윈드(RWE Offshore Wind GmbH, 이하 RWE)와 '해상풍력발전 및 그린수소사업 공동개발'에 대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국내 해상풍력발전사업 공동개발 ▲양사가 개발 중인 사업의 상호간 참여기회 도모 ▲그린수소를 포함한 신에너지 분야 신

규사업 모색 등에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이다.

양사는 국내 해상풍력발전시장에 대한 현대건설의 경험 및 네트워크와 R

WE의 글로벌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 및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 해상풍력발전사업 공동개발에 협력해 글로벌 시장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국내 최초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 및 보령 청정수소사업 등을 통해 축적한 현대건설의 수소 생산기술과 RWE의 수소 밸류체인 전반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그린수소 분야에서도 협력기회를 모색할 방침이다.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은 "양사의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사업기회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솔루션을 개발해 차세대 에너지 전환의 흐름을 선도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kdh@

## 하나금융, 18일 0시~12시 거래 일시중지

모든 금융 거래·서비스 중지돼 부동산 거래 등 미리 계획 수립을

하나은행 금융서비스가 오는 18일 자정 0시부터 정오12시까지 일시 중단된다.

하나은행은 시스템 업그레이드 작업에 따라 18일 자정 0시부터 정오 12시까지 12시간동안 모든 금융거래와 서비스가 일시 중단된다고 15일 밝혔다.

중지되는 서비스는 ▲모바일뱅킹(하나원큐, 원큐기업, 하나EZ, 아이부자)·인터넷뱅킹·팝뱅크·폰뱅크·CMS·모바일웹뱅크 등 전자금융거래 ▲가상계좌거래 ▲체크·직불카드를 이용한 거래(현금 인출, 물품 구입 등) ▲하나은행 ATM 이용 거래(현금 인출, 계좌 송금 등) ▲하나인증서 서비스 등이다.

타행과 제휴기관을 통해 하나은행의 계좌와 시스템을 이용하는 서비스도 일시적으로 거래가 중지된다. 하나은행의

계좌를 이용한 ▲오픈뱅킹 서비스 ▲타은행 ATM 및 제휴 CD기 인출 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되며 ▲타행으로부터의 하나은행 계좌 입금도 중지된다.

하나카드도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해 같은날 오후 6시까지 거래가 중지된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원큐페이, 하나머니)을 이용한 서비스와 온라인 결제, 장·단기카드대출 서비스, 실시간 알림 서비스, 포인트 및 바우처 사용 등이 일시 중지된다.

다만 오프라인 현장에서의 거래는 가능하다. 인천국제공항 환전소의 '현금 환전'과 오프라인 가맹점의 '실물 신용카드 결제'는 중단없이 이용 가능하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일시 중단에 대비해 꼭 필요한 현금은 미리 준비해주시고, 부동산 거래 등 거래의 송금과 자금 수취 상황 등에 대해서도 미리 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 NH농협금융 '올원뱅크' 1000만명 돌파 미래비전 선포식

NH농협금융은 지난 14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이석준 회장과 이석용 은행장 및 임직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만고객 돌파 기념 'NH올원뱅크 미래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NH올원뱅크는 지난 2016 8월 출시 후 7년 만에 가입고객 1000만명을 돌파했으며, 간편한 금융서비스 뿐만 아니라 농협금융·경제 계열사 등과 연계한 특화 제휴서비스와 부동산, 자동차 등 차별화된 생활서비스를 통해 종합금융 플랫폼으로서 발전을 거듭해왔다.

행사에서는 NH올원뱅크의 추진 성과를 되돌아보고, 홍보모델의 축하 인사를 시작으로 임직원 및 고객들의 응원 메시지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금융·생활·인증 서비스를 통합해 'NH올원뱅크 하나로 다 되는 슈퍼



NH농협금융은 지난 14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1000만고객 돌파 기념 NH올원뱅크 미래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석준 NH농협금융 회장(두번째줄 왼쪽 일곱번째)과 이석용 NH농협은행장(여섯번째) 및 임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NH농협금융

플랫폼 미래 비전'을 선포했다.

비전의 내용은 ▲고객에게 금융 서비스를 쉽고 편하게 ▲고객 일상 속 생활 혜택으로 가득 찬 새로운 경험 제공 ▲고객의 요구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 변화 체계 구축 등 슈퍼플랫폼

의 미래상을 담았다.

NH농협금융은 1000만고객 돌파를 기념해 오는 21일까지 서울 성수동 플랜트랩스 성수플래그쉽에서 'NH올원뱅크 신선놀음 팝업스토어'를 진행한 다. /이승용 기자

## 인카금융서비스, 3분기 역대 최대 매출

매출액 3925억, 영업이익 298억 달성

인카금융서비스가 3분기당기순이익 197억원을 달성하며 상장 이후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인카금융서비스는 3분기에 매출액 3925억원, 영업이익 298억원 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3분기 매출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35.1% 증가했다. 영업이익도 46.9%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26.4% 증가했다.

인카금융서비스는 지난 9월 말 기준 1만4000명 규모의 설계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 같은 영업력을 바탕으로 지난 8월에는 '장기 신계약 70억원 달성'이

라는 역대 최대 영업 성과를 기록했다.

재무성과가 상승배경에는 소속 설계사들의 영업력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IT) 서비스 부문 투자가 자리 잡고 있다. 최근에는 ▲장기 상품 비교 추천 시스템 ▲자동차 플랫폼 '카링' 등을 출시했다. 향후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인 영업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설명이다.

인카금융서비스 관계자는 "상장 이후 어려운 경제와 업계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인 경영 성과를 창출 해내고 있다"며 "앞으로 설계사들의 전문성 향상 및 영업지원 시스템 지원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 “매년 플라스틱 32만t 재활용… 화학산업 르네상스 이끌 것”



## 재활용 종합단지 '울산 ARC' 첫 삽

“북태평양한가운데 ‘쓰레기 섬’이 있습니다. 8만톤(t)이 넘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죠. SK지오센트릭의 ‘울산 ARC’가 가동되면 매년 플라스틱 32만t을 재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나경수 SK지오센트릭 사장은 ‘세계 최초이자 최대 플라스틱 재활용 종합단지’인 울산 ARC 기공식을 앞두고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에 대한 의지와 ‘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나 사장은 “플라스틱 재활용 핵심기술을 보유한 울산 ARC를 통해 국내 화학산업의 르네상스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르네상스는 ‘재생’, ‘부흥(부활)’의 의미를 함의하고 있다. 폐플라스틱으로 새로운 자원을 만들어 화학산업에 생기를 불어넣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화학기업들은 중국의 범용 제품 생산 증가와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로 실적 압박을 겪고 있다. 나 사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말을 빌려 한국의 화학사업도 이미 ‘서든 데스’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꼬집었다.

SK지오센트릭은 이 같은 상황을 타파에 나섰다. 15일 울산에서 ‘국내 플라스틱 환경 문제 해결’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동시에 이루기 위해 울산 ARC 기공식을 열고 첫 삽을 떴다.



15일 오후 울산 남구 성암동 산89번지에서 열린 SK지오센트릭 ARC기공식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김두겸 시장, 나경수 SK지오센트릭 CEO, 김준 SK이노베이션 부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 환경문제 해결·미래 먹거리 확보 선진기술 가진 글로벌 3사 맞춘

### 축구장 22개 넓이, 2025년 말 완공 생산될 물량의 30% 선주문 받아

#### ◆이름과 체질도 바꿨다

나 사장은 “수년간 기존 범용 화학시장은 중국 공장 증설 등으로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화학 산업은 수익성을 확보하기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에 SK종합화학은 SK지오센트릭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20만t의 에틸렌을 생산하며 꾸준한 수익성을 냈던 50년 석유화학의 역사인 NCC 공정 가동중단을 결정했다. 대신 반세기 동안 플라스틱 원료를 만들어온 기업으로서의 책무를 ‘사업 구조 혁신’에서 찾았다. 다만 전통적인 화학사업을 진행해왔던

SK지오센트릭의 힘만으로는 재활용 사업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단순하게 자르고 녹이는 ‘기계적 재활용’만으로는 재활용 횡수에 한계가 분명했다.

SK지오센트릭은 조각이나 폐기될 수밖에 없는, 아직은 잘 재활용되지 않는 폐플라스틱에 주목했다. 그리고 어려운 재활용도 할 수 있는 선진 재활용 기술을 가진 글로벌 3사와 손을 잡았다. ▲‘LOOP(루프)’는 PET 해중합 ▲‘PCT(퓨어사이클테크놀로지)’는 고순도 PP 추출 ▲‘플라스틱에너지’는 열분해 기술로 SK와 협력을 이어왔다.

#### ◆울산 ARC에서 이루는 재활용의 꿈

SK지오센트릭은 SK이노베이션 울산복합플렉스(CLX) 내 21만5000㎡ 부지(울산광역시 남구 고사동)에 플라스틱 재활용 클러스터 ‘울산 ARC’를 조성하기에 이르렀다. 국제규격 축구장 22개 넓이와 맞먹는 크기로 지어지는 공사엔

총 1조8000억원이 투자된다. 오는 2025년 말 완공할 예정이며 SK지오센트릭 측에 따르면 아직 공장을 짓기도 전이지만 이미 생산될 물량의 약 30% 수준은 선 주문된 상태다.

14일 기자간담회에 참석하다니엘 솔로미타 루프 CEO는 “SK지오센트릭과 협업하고 울산 ARC 프로젝트에 함께 하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다”며 “그간 범용 플라스틱 제품과 동일한 품질의 페트(PET) 플라스틱 생산, 100% 재활용 소재로 만든 폴리에스터 섬유를 생산하는 획기적인 해중합 기술을 완성했다”고 말했다. 루프는 캐나다 퀘벡의 생산 시설에서 이 기술을 성공적으로 실증한 바 있다.

특히 루프는 의류 섬유 원사에 들어가는 플라스틱을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아시아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고 봤다. 다니엘 솔라미타 CEO는 “루프 인더스트리의 기술 바탕으로 울

산 ARC가 아시아지역의 섬유 제조 공급망을 재창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PCT의 더스틴 올슨 CEO는 폴리프로필렌(PP) 쓰레기에 묻은 모든 불순물을 고순도PP추출 공정을 통해 제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PCT의 재활용 제품이 기존 플라스틱 제품만큼 물성이 우수하다”며 “재활용 플라스틱이 기존 제품보다 좋지 않다는 고정관념을 깰다”고 자부했다.

이밖에도 영국플라스틱에너지는 열분해 기술로 폐비닐 등 플라스틱을 재활용할 수 있으며, 2016년부터 스페인에서 공장을 운영 중인 베테랑 기업으로 한국에서도 SK지오센트릭과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SK지오센트릭은 울산 ARC를 통한 재활용 신산업 활성화로 국가 경쟁력 제고, 국내 플라스틱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할 전망이다. 울산 ARC 상업생산이 본격화되는 2026년부터는 매년 폐플라스틱 32만t이 재활용될 전망이다. 이는 국내에서 1년 동안 소각·매립되는 폐플라스틱(350만t)의 약 10%가 처리 가능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SK지오센트릭은 클러스터가 위치한 울산 지역을 포함한 국내 전반에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회사는 “본 공사에 약 2600명의 상시고용, 3만8000여명의 간접 고용효과 그리고 울산 지역 간접 생산유발효과가 연 1조3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완공 시엔 연 7억달러의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 고려아연, 5000억 투입 니켈 제련소 건설

### 울산 ‘울인원 니켈 제련소’ 기공식 황산코발트 등 2026년 생산 목표 이차전지 국내 공급망 완성 기대

고려아연이 최첨단 친환경 제련기술을 집약한 ‘울인원 니켈 제련소’ 건설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 핵심소재인 니켈 공급망 안정화에 앞장선다.

고려아연은 15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박성민 국회의원 그리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최내현 캠코 대표 등 내외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 울주군 온산 공단에서 연간 약 4만2600톤(니켈 금속량 기준)의 생산능력(CAPA)을 지닌 ‘울인원 니켈 제련소’ 기공식 행사를 개최했다. 또 현대차와 LG화학, 한화, 트라피구라, GM 등 고려아연과 캠코의 주요 파트너사를 비롯해 협력업체와 지역 주요기관장 등 200여 명도 자리를 함께해 기공식을 축하했다.

고려아연이 황산니켈 자회사캠코(KEMCO)를 통해 건설하는 울인원 니켈 제련소는 2026년 상업생산을 목표로 총 5063억원이 투자된다. 고려아연과 캠코는 세계 최초의 울인원 니켈 제련소 건설을 통해 니켈 매트, 산화광의 MHP 등 모든 종류의 니켈 함유 원료를 처리하는 한편, 황산니켈부터 황산코발트, 전구체 등을 생산하며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15일 오후 울산 울주군 온산을 국가산업단지에서 열린 고려아연-캠코 울인원 니켈제련소 기공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배터리 원료 및 부품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이차전지 산업의 국내 공급망을 완성하게 된다.

본격적인 상업생산이 시작되는 2026년부터 전구체, 양극재 등 이차전지 밸류체인 전반에 이차전지 핵심소재인 고순도 황산니켈 공급이 가능해진다. 특히 캠코에서 생산될 고순도 니켈은 미국의 IRA 기준을 충족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소재가 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가격 경쟁력 확보는 물론 이차전지 공급망의 다변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회사는 전망했다.

한편 울인원 니켈 제련소는 ‘저탄소 공법’을 적용해 환경 영향을 크게 감소시킬 예정이다. 전통적인 니켈제련소와는 기술적으로 차별화된 친환경 공정을 적용해 니켈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산화탄소 배출량을 현저하게 감소시키는 등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세계적인 흐름과도 궤를 같이하게 된다.

고려아연은 비철금속 분야 세계 1위 기업이다. 이차전지 소재를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계열사 캠코(황산니켈), 자회사 케이젯(동박), 한국전구체주식회사(전구체)를 통해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또 국내 기업과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현대차그룹과 전기차 배터리 핵심소재 밸류체인 사업에 나선다. 전기차 배터리 핵심전력소재인 니켈의 원재료 공동 소싱, 가공 및 중간재의 안정적 공급, 폐배터리 재활용을 비롯한 신사업 모색 등 니켈 밸류체인 전반에 걸친 포괄적 협력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캠코와 LG화학은 합작법인 한국전구체주식회사를 설립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50년전 온산 국가산업단지 조성역사를 같이 하면서 정부와 지역사회의 도움 덕분에 고려아연은 세계 최대, 최고의 종합비철금속 제련회사로 성장하면서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었다”며 “다가올 50년을 대비하는 또다른 도전인 이차전지 소재 분야에서도 우리만의 기술과 자본력을 배경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이 되고자 더욱 정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

## LG전자 자율주행로봇, 포스코 설비 점검

### 광양제철소서 단독 임무 완수

LG전자가 포스코와 함께 스마트팩토리를 위한 로봇과 인공지능(AI) 기술 협력을 성공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LG전자는 13일부터 포스코 광양제철소 4열연공장 지하전기실에서 실내 자율주행로봇을 활용해 무인 시설관리 실증사업을 진행했다.

LG전자가 개발한 로봇은 작업자 개입 없이 단독으로 임무를 마치는데 성공했다. 축구장 2개 이상으로 넓은 지하전

기실에서 배수로 등 장애물을 스스로 피하며 순찰하고, 각종 설비 작동 상태 점검과 결과 공유 등 업무를 완수했다.

LG전자와 포스코는 로봇에 첨단 기술을 총동원했다. 카메라와 라이다센서를 탑재했으며, 저조도 환경 인식을 높이고 열화상 카메라로 이상 온도도 감지한다. 온도가 높은 환경을 감안해 방열 및 냉각 성능을 높이고 원격 제어도 가능하다. 모듈 방식으로 필요에 따라 부품을 교체해 다양한 임무에 투입할 수도 있게 했다. /김재용 기자 juk@

## 현대로템, 2050년 탄소중립 달성 총력전

### 5대 감축전략 ROTEM 마련

현대로템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강화한다.

현대로템은 오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이행 전략을 수립했다고 15일 밝혔다. 오는 2030년까지 사업장과 공급망(ValueChain)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지난해말 기준 대비 각각 42%, 25% 만큼 감축하고 장기적으로는 2050년까지 완전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이행 전략은 기업의 탄소중립

달성 정도를 평가하는 ‘과학 기반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SBTi)가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권고안을 반영해 수립됐다.

현대로템은 사명의 영문 이니셜(ROTEM)에 기반해 5대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마련했다. 이 전략은 Reduction(온실가스 감축), Offset(온실가스 상쇄), Transition(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Eco-design(제품 생애주기 저탄소화), Mobilization(탄소중립관리)로 요약된다. /양성운 기자

# 생성형AI 접목, DX 가속화... 데이터 저장·보안 경쟁 '치열'

〈디지털 전환〉

**데이터 산업계, 혁신 기술로 공략  
클라우드 통합 된 데이터플랫폼  
구글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성 높여  
네이버 클라우드 등 비즈니스 본격화**

기업과 공공기관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DX) 수요가 늘며 이들을 위한 데이터 플랫폼 시장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최근 DX 과정에서 생성형 AI를 이식하는 사례가 늘며 방대한 데이터셋을 저장하고 보안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15일 데이터 기업 클라우드가 서울 송파구 시그니엘 서울에서 글로벌 데이터 플랫폼 컨퍼런스 '이볼브2023(Evolve2023)'을 개최했다. 아마존웹서비스(AWS), IBM, 인텔(Intel)과 공동주최한 이번 행사는 기업용 AI 플랫폼에서 기업이 고객과 상호작용 할 수 있는 대규모언어모델(LLM) 구축 등 다양한 첨단 이슈를 공유했다.

최승철 클라우드코리아 지사장은 클라우드의 데이터플랫폼(CDP)를 소개하고 "데이터 산업의 글로벌 리더



15일 최승철 클라우드코리아 지사장이 서울 송파구 시그니엘 서울에서 진행된 '이볼브2023'에서 AI 기반 데이터 플랫폼에서 필요한 다양한 이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클라우드

가 되기 위해서는 기업이 자신의 모든 데이터와 AI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 온프레미스, 클라우드 등 모든 데이터를 AI에 적용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며 "퍼블릭·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아우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이 대두되는 만큼 데이터가 어디 있더라도 잘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통합되고 심리스한 데이터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볼브2023 행사에 앞서 B2B 대상

데이터 사업을 다루는 주요 기업들의 소식도 줄지어 전해졌다.

구글클라우드는 1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행사를 열고 '버텍스 AI(Vertex AI)'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고객사에 서울 리전(Regions·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물리적 데이터센터) 서비스를 제공해 보안성을 높여줬다 밝혔다. 6일에는 팀 네이버가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네이버의 두 번째 자체 데이터센터 '각 세종'을 본격적으로 가

동, AI, 클라우드 중심 비즈니스 본격화를 선언했다. 삼성SDS는 지난달 컨퍼런스에서 기업용 생성AI 서비스인 브리티 코파일럿과 패브릭스를 발표해 기업 DX 수요를 정확히 겨냥했다.

거의 모든 산업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DX에 관한 글로벌 시장은 비즈니스 와이어에 따르면 2021년 52만 1467백만 달러에서 연평균 19.1%로 성장해 2026년 124만 7542백만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기업의DX는 ▲데이터중심의사결정 ▲디지털 기술 통합 및 자동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고객 경험 개선 ▲사이버 보안 강화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전환 등을 주요안점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데이터 중심 의사결정과 자동화를 위해 생성형 AI가 적극 도입되는 추세인데 이는 곧 데이터 연산을 위한 초거대 데이터 플랫폼과 보안 위협에 대한 경계 등 최첨단 기술과 전문가 집단의 필요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다니엘 핸드 클라우드아태지역 최고기술책임자(CTO)는 기업 DX와 생성형 AI 간 관계에 대해 "생성형 AI는 자연어 처리와 LLM을 통해 새롭게 데

이터와 소통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줬다"며 "데이터를 ETL로 정리하고 SQL로 분석한 전통적 아키텍처와 달리 최신 AI 스택은 LLM에 자연어로 질문하고 임베딩 기술을 통해 기존 데이터 모델이나 ETL 계층을 없애는 형태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양한 앱이 대형 모델을 공유하며 튜닝이나 파인튜닝으로 접근하는 형태인 만큼 데이터를 완전히 통합해 공유하는 것과 데이터를 튜닝하는 게 모두 필요해진다"며 "상용 모델과 오픈소스 모델을 유연하게 쓸 수 있어야 하고, 학습 및 추론 그리고 미세조정 등의 비용을 최적화하기 위해 퍼블릭 및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적절히 혼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IT업계 관계자는 "생성형 AI가 가져오는 혁신 만큼 사용을 위한 다양한 준비과정과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하는 지점들이 있고, 이는 곧 데이터 기업들에게 중요한 비즈니스 기회가 된다"며 "특히 기술집약적인 만큼 얼마나 자사 기술을 잘 어필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 제조업 위협하는 '해킹'... 스마트팩토리 보안 강화 박차

**랜섬웨어 공격에 시설운영 중단  
납기 지연·원부자재 손실 등 피해  
삼성SDS·LG CNS 보안관리 지원**

국내 기업들이 스마트팩토리 전환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안전한 운영을 위한 보안성도 주목받고 있다.

15일 시장조사기관마켓앤마켓에 따르면 글로벌 스마트팩토리 시장은 지난 2022년 862억달러에서 2027년에는 1409억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국 기업들의 스마트팩토리 구축은 제조업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인프라로 인식되고 있다.

삼성, LG 등 국내 대기업에서도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위해 인력과 인프라를 구성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및 기타 공공기관과 연계해 국내 중소기업에 스마트팩토리 보급을 위해 지원 중



LG전자 창원 스마트팩토리 생산라인. /LG전자

이다.

그러나 스마트팩토리에 대한 위협의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이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대응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스마트팩토리는 폐쇄형 네트워크를 사용하던 기존 제조업 공장과

달리 클라우드를 비롯한 외부망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해킹의 위협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스마트팩토리에 대한 랜섬웨어 공격이나 해킹은 시설 운영 중단으로 이어진다. 특히 해킹으로 공장이 멈춰 서면 제조업의 특성상 납기 지연, 원부자재 손실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기 때문에 다른 업종에 비해 해커들의 표적이 되기 십상이다.

실제로 지난 2018년 대만 반도체 기업 TSMC는 1만대 이상의 생산용 PC가 랜섬웨어에 감염돼 공장 가동을 48시간가량 중단해 생산에 차질이 생겼다. 이로 인해 연 매출 3%에 해당하는 2억5000만 달러 규모의 손해를 입은 바 있다.

이에 기업들은 스마트팩토리 보안 강화에 매진하는 분위기다. 삼성SDS는 스마트팩토리를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공격을 막기 위해 AI(인공지능)를 활용한 OT(생산설비 및 제조공정) 보안 서비스에 집중한다. AI는 네트워크 트래픽을 기반으로 사용자, 디바이스, 네트워크 행위의 정보를 수집해 보안 가시성을 확보한 후 보안 이상 징후를 감지해 보안 관리를 지원한다.

LG CNS는 정보보호 전문기업 이글루코퍼레이션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스마트팩토리 내 외부 침입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분석한다. 고객사의 스마트팩토리는 다양한 브랜드의 생산설비가 함께 설치돼 생산설비 간 데이터 규격이 서로 달라 상호 연동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글루코퍼레이션은 독립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특화 기술을 제공해 보안을 강화한다.

/차현정 기자 hyeon@

LGU+

**로봇 통합관계 플랫폼  
'U+로봇' 기술 고도화**

LG유플러스는 로봇 통합관계 플랫폼 'U+로봇'의 데이터 분석 기술을 고도화했다고 15일 밝혔다.

'U+로봇'은 로봇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실시간 관제, 원격제어, 사용량 통계 기능을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특히 로봇 표준연동 규격을 함께 개발, 제조사관계없이 이종 로봇과 연동이 가능해 배송·안내·물류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이번 U+로봇 플랫폼의 데이터 파이프라인(데이터 처리 과정) 구축을 완료하며 데이터 분석 기술을 대폭 높였다. 이는 ▲로봇의 하드웨어·사용량·상태 정보 실시간 수집 및 서버 표준규격에 맞춘 데이터 정형화 ▲정형화된 데이터 가공 ▲데이터 분석 ▲분석 결과를 시각화한 리포트 제공 4단계로 구성된다.

먼저 U+로봇은 전국에 설치된 U+서빙로봇으로부터 제조사·모델명 디바이스 정보, 서빙 횟수·시간 등 업무 수행 정보, 로봇 위치 좌표, 업무·대기 상태 등 실시간 상태 정보 등 실시간 에러 정보를 포함한 로봇 데이터를 비롯해 로그인·제어 등 앱 사용 데이터 등을 실시간으로 전송받는다. /구남영 기자



LG유플러스 직원들이 로봇 이용 고객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데이터 분석 리포트를 리뷰하고 있다. /LG유플러스

##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 7명 위원 구성

김소영 전 대법관 등 포함

카카오 관계사의 준법·윤리경영을 감시할 외부 기구인 '준법과 신뢰위원회'가 15일 1기 위원 명단을 공개했다.

위원회는 김소영 위원장을 포함해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카카오와 독립된 외부 조직으로 설립되며, 관계사의 준법감시 및 내부통제 체계를 일일할 수 있는 강력한 집행기구 역할을 하게 된다.

15일 카카오에 따르면 위원회는 김소영 위원장 외 ▲김용진 차한경영연구

소 소장(프리첼 공동창업자),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한국은행법학회장),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대 교수(전 한국벤처창업학회 회장), ▲이영주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이사장(전 사법연수원 부원장), ▲이지운 서울신문 전라기획실장(전 편집국장), ▲김정호 카카오 경영지원총괄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신뢰도 제고를 위해 법률·시민사회, 학계, 언론, 산업 등 각 영역을 대표할 수 있는 전문가로 선정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 네이버 '세종' 슈퍼컴, 성능 세계 22위

국내 슈퍼컴 중에서 최고성능

네이버의 슈퍼컴퓨터 '세종'이 전세계 슈퍼컴퓨터 500대 중 22위를 기록했다. 네이버는 최근 공개한 데이터센터 각 세종에 구축된 슈퍼컴퓨터 '세종'이 미국 덴버 콜로라도주에서 열린 고성능 컴퓨팅 국제 컨퍼런스 'SC23'에서 공개된 톱500 중 22위를 기록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슈퍼컴퓨터 '세종'의 연산 능력은 최대 32.97페타플롭스(PFlops)로 올해 11월 기준, 국내 슈퍼컴 중에서는 최고 성능을 기록했다. 이를 통해

2021년 등장 이후 국내 1위를 유지하고 있던 삼성전자 'SSC-21'의 왕좌를 탈환했다.

네이버는 2020년 하반기부터 슈퍼컴퓨터를 구축·운영 중이며, 이번에 새로 구축한 슈퍼컴퓨터 '세종'은 기존에 이 회사가 구축했던 슈퍼컴퓨터의 2배 규모다.

'세종'은 엔비디아 A100 텐서 코어 GPU 2240개로 구성돼 있으며, 엔비디아 링크드 인피니밴드(InfiniBand) 네트워크 플랫폼과 인네트워크 컴퓨팅(In-Network Computing)을 통해 저지연, 고속 통신이 가능하다. /구남영 기자



와인픽스  
분당정자점  
GRAND OPEN  
2023.11.17

**OPEN EVENT**  
11.17 - 12.07

와인, 위스키, 사케, 맥주, 글라스, 치즈 등 주류와 관련된 2,000여 종의  
상품을 만날 수 있는 와인픽스 분당정자점에 초대합니다.



와인픽스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winepick\_s

**WINE PICKS**

※ 경고: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 공매도 금지에 개미 돌아오나... 투자예탁금·빚투 늘었다

금리 인상 마무리 기대 등에 투자예탁금, 47.9조... 3.2조 늘어  
신용거래용자 잔고 4849억 증가  
포스코홀딩스 등 이차전지에 몰려

공매도 금지로 인해 얼어붙었던 투자 심리가 호전되면서 투자자예탁금과 신용거래용자 잔고가 늘어나고 있다. 금리 인상 마무리 기대가 커지고 있어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이차전지 업종 강세가 정점을 찍었던 지난 7월 말 58조원 수준까지 증가한 투자예탁금은 공매도 금지 직전인 3일 44조 6820억원까지 감소했다가 공매도 전면 금지로 인한 단기 숏커버링(빌려서 판 주식을 갚기 위해 주식을 사들이는 것) 수급 및 금리 인상 종료의 기대로 지난



서울 여의도 대신증권 본사 객장 모습. /뉴스1

13일 기준 47조9082억원으로 약 3조 2262억원 늘어났다. 투자자예탁금은 투자자가 주식을 사려고 증권사 계좌에 맡겨두거나 주식을 팔고서 찾지 않은 자금으로 주식투자 열기를 가늠하는 지표로 통한다.

또한 지난 9월부터 감소했던 '빚투'(빚내서 투자)도 증가, 신용거래용자 잔고는 지난 3일 16조6247억원에서 13일 17조1096억원으로 4849억원 늘었다. 신용거래용자 잔고는 투자자가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린 뒤

변제를 마치지 않은 금액으로, 이 잔고가 증가했다는 레버리지(차입) 투자가 늘어났다는 의미다. 특히 개인들의 자금은 이차전지에 몰리고 있다. 지난 3일부터 이날까지 개인투자자들은 포스코홀딩스를 3183억원어치 사들였으며, 포스코퓨처엠(2488억원), 삼성SDI(1692억원) 등을 순매수했다. 이외에도 포스코인터내셔널(605억원), 예코프로(457억원) 등을 사들였다.

지난주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가 시행된 이후 주식 시장이 오를 것으로 기대됐으나 주가가 떨어지는 등 부진한 투자자들은 신용거래로 손실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9546억원이던 위탁매매 미수금은 9일 기준 1조490억원으로 늘었다.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실제 반대매매 금액은 지난 8일 19억4600만원이었는데 10일 104억9000만원으로 증가했다. 반대매매

는 고객이 증권사의 돈을 빌리거나 신용융자자금으로 주식을 매입 후 빌린 돈을 약정 만기 기간 내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의사와 관계없이 주식을 강제로 일괄매도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업계는 주식 시장의 방향성을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여부 등 거시적 여건이 결정할 것으로 내다봤다. 강대석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금지로 불필요한 변동성이 야기됐다"며 "미국증시보다 낮게 유지됐던 국내증시 변동성 지수가 여전히 10월 초 수준보다는 높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고금리 부담 완화에 힘입어 공매도 금지와 관계없이 시장은 긍정적인 퍼포먼스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며 "이는 연말·연초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 증권사, 부동산 PF 부실 우려 지속에 구조조정 '칼바람'

하이투자증권 부동산 PF 전담팀 이관  
김진영 사장 포함 2명 면직 등 중징계  
미래에셋증권 부동산 사업부 줄여

고금리 장기화의 여파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일부 증권사에서 관련 부서를 대폭 축소하는 등 조직 개편이 나왔다. 연말 인사 시즌을 앞둔 만큼 구조조정 '칼바람'도 예상되고 있다.

1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전날 하이투자증권은 인사위원회와 이사회를 거쳐 김진영 투자금융총괄 사장을 포함한 2명을 면직시키는 등 중징계 처분을 확정해 통보했다. 김 사장은 부동산 호황기에 하이투자증권의 부동산 PF 전담팀을 이끌었던 장본인이다. 2018년부터 꾸준히 증권사 연봉 상위권에 올랐으며, 지난해에는 65억원의 '연봉킹'으



/유투이미지

로 꼽히기도 했다. 하지만 하이투자증권은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부동산금융 부문을 축소시키고 리스크 관리 강화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2020년 기준으로 하이투자증권

의 자기자본 대비 우발채무(익스포저) 비율은 136.8%에 달한다. 올해 3분기 80.2%까지 감소하기는 했지만 3분기 우발채무 1조1203억원 중 부동산 부문이 9512억원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징계성 개편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미래에셋증권도 조직 개편을 통해 기존 7개였던 부동산 사업부를 4개 본부로 줄였다. 미래에셋증권은 올해 3분기 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5.5% 늘어난 1731억원을 기록했지만, 해외 부동산 PF 총담금 등이 반영되면서 당기순이익(768억원)은 전년 동기보다 29.8% 줄어들었다.

시장에서는 미래에셋증권과 하이투자증권을 시작으로 비슷한 조직 개편 흐름이 확대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부동산 침체기인 만큼 그런 부분의 리스크

관리를 하고자 하면 증권사 내 부동산 중심 조직 개편이 더 나올 수 있다"면서 "각사별로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해왔냐에 따라 타격감의 정도는 다르기 때문에 움직임도 차이를 보일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은 만큼 증권사의 재무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본다면 관련 부서를 축소시키는 흐름이 이어질 개연성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리스크 관리 부분에서 증권사들의 희비가 갈렸던 부분이 있지만, 리스크 관리만 해결된다면 여전히 증권사가 포지션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증권사 부동산 PF 위험노출액은 28조4000억원이며, 연체율은 17.28%에

달한다. 동일 기간 고정이하자산(부실 자산 분류) 규모는 3조7494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전년 동기 2조4401억원보다 53.7% 증가한 규모다. 자본시장연구원 최근 보고서에도 2023년 들어 자금시장 여건이 완화되고 있지만, 고금리 및 부동산 침체가 지속될 가능성을 대비해야 한다며 여전히 위험성을 당부하고 있다. 특히 공사 및 입주, 그리고 PF 상황 완료 이후에 위험이 해소되는 부동산 PF의 특성을 고려한 임직원 성과보수체계 설계나 심사부서의 요건 정비 등 부동산PF 관련 내부통제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반면, 한 업계 관계자는 "미래에셋증권이나 하이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PF 관련 이슈가 크게 있었고, 임직원이 면직되는 등 특이 케이스에 속한다"며 "부동산 시장이 재작년처럼 좋아지지 않더라도 기존 사업들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조직을 전반적으로 개편하는 상황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 이복현 "공매도 금지 루머 유포... 불공정거래 등 엄중 단속"

尹 "근본적 개선방안 만들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5일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 루머 등 시장불안을 조성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임원회의를 통해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한 한시적으로 공매도 전면 금지를 발표한 것은 국내 증시의 변동성 확대와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 적발 등을 감안한 조치였다"며 "현재 금융당국이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무분별한 시장 불안 조성 행위나 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중 단속 및 조치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원장은 유튜브 등을 통해 사실과 다른 통계 수치를 언급하는 등 확인되지 않는 루머를 유포하는 시장 불안 조

성 행위가 발생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투자자들이 유튜브, SNS 등을 통한 근거 없는 루머 등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하게 투자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 개선과 관련해 그간 논란이 되어 온 기울어진 운동장을 철저히 바로 잡고, 개인투자자를 적극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제대로 마련될 수 있도록 금융위에 협조하겠다"고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일 국무회의에서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방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응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금융범죄 척결과 금융부문의 불공정 시장관행 근절을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금감원의 민생관련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현재의 피해예방, 권익보호 체계에서 민생침해 대응, 공정시장 질서확립을 위한 체계로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직개편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민생안정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금감원에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를 갖고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며 "불법사금융을 끝까지 추적해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차명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남김없이 박탈하라"고 지시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 금감원, 디지털 감사기술 도입지원 T/F 출범

회사 이해 ↑·고위험 부분 감사 집중

금융감독원은 디지털 감사기술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 감사인감리실장과 회계법인 디지털 감사담당자, 한공회·상장협, 학계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기업의 재무보고와 외부감사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면서 회계법인에서도 디지털 기술을 외부감사에 활용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이 감사목적에 맞게 활용될 경우 회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위험이 높은 부분에 감사 노력을 집중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금감원 장석일 전문심의위원은 이날 열린 킷오프 미팅에서 "외부감사 과정에서의 디지털 감사기술 활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성공적으로 활

용할 경우 감사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본격적인 활용에 앞서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들을 짚어보면서 안전장치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전문가 양성, 회계법인간 격차 해소 등에도 함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 활용수준은 초기 단계로 아직까지 기업을 포함한 외부감사 관련자들의 디지털 감사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다. 빅4 등 일부 회계법인은 글로벌에서 개발한 디지털 감사기술을 도입하거나 자체 개발한 업무자동화 등을 사용 중이지만 외부감사에 직접적인 사용률은 낮다.

T/F는 앞으로 ▲디지털 감사기술 현황 및 영향 분석 ▲디지털 감사기술의 검증방안 ▲데이터보안, 회계법인별 격차 완화 ▲비용부담 등에 대해 단계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 주택건설 침체에도 시멘트社 실적 ‘쑥’... 원가절감 등 ‘결실’

3분기까지 쌍용, 한일, 아세아 등 전년비 매출·영업익 ‘동반 상승’ 시멘트값 인상 효과 등 복합 작용 대규모 설비투자 ‘현재 진행형’



시멘트회사들이 주택 경기 침체 등에도 불구하고 올해 3분기까지 양호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강원도에 있는 한 시멘트공장 전경.

주택 건설 경기 침체, 수요 위축 등에도 불구하고 시멘트 회사들이 양호한 실적을 기록하며 선방하고 있다.

시멘트값 인상 효과와 주원료인 유연탄 가격 안정, 원가절감 노력 등의 결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난해에 비해 전반적으로 나아지면서다.

이런 가운데 탄소 중립 등 친환경을 위한 시멘트 업계의 대규모 설비투자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15일 관련 업계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쌍용C&E는 연결기준으로 올해 들어 3·4분기까지 1조3186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매출 1조1451억원보다 15.2% (1735억원) 늘어난 액수다.

쌍용C&E는 3분기까지 영업이익도 78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78억원보다 15.6% (106억원) 증가했다.

쌍용C&E 관계자는 “3분기까지 실적은 상반기 수요 증가와 가격 인상 효과

에 힘입어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면서 “시멘트는 내수 판매량이 5% 정도 증가했고, 유연탄 가격 안정화와 지속적인 원가절감 노력으로 영업이익도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쌍용C&E의 경우 지난해 톤(t)당 평균 7만6652원이던 시멘트값이 올해 3분기엔 8만5235원으로 11.2% 올랐다.

쌍용C&E는 올해 매출 1조9000억원, 영업이익 20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는 1조7059억원의 매출과 1920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둔바 있다.

한일시멘트도 올해 3분기까지 1조

3057억원의 매출과 1818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지난해 동기엔 1조674억원의 매출과 855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특히 영업이익은 벌써 2배를 훌쩍 넘어섰다.

한일시멘트는 내수가 기준으로 지난해(평균) 대비 올해 3분기 현재 시멘트(15%), 레미콘(17.5%), 레미탈(22.7%) 가격이 모두 올랐다.

아세아시멘트 역시 매출(3분기 기준)은 7449억원에서 8864억원으로, 영업이익은 808억원에서 1067억원으로 각각 늘었다.

성신양회(매출 7540억→8012억원, 영업이익 223억→391억원)와 삼표시멘트(매출 4962억→6000억원, 영업이익 322억→644억원)도 실적이 지난해보다 나아졌다.

시멘트 전방산업의 하나인 주택시장은 녹록치 않은 분위기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9월 누계 기준으로 전국 주택 착공은 12만5862호로 전년 동기의 29만4059호에 비해 57.2%나 감소했다. 특히 수도권이 지난해 9월까지 약 14만9000호가 착공했지만 올해엔 6만호 정도에 그쳐 지방(약 14만5000→약 6만6000호)에 비해 크게 줄었다.

이런 가운데 갈수록 강화되는 환경규제를 맞추기 위한 업계의 대규모 설비투자는 현재 진행형이다.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시멘트산업의 설비투자 규모는 2021년 4226억원, 2022년 4468억원, 2023년(예정) 5764억원 등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40.63%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공해·환경·안전 등 환경규제, 자동화·에너지절약 등 원가절감 등 ‘합리화설비투자’가 연평균 35.49%로 전체의 87.3%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택 경기 불확실성 확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환경규제 등으로 시멘트회사들이 설비투자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게다가 고금리로 인한 자금 시장 불안도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업계 1위인 쌍용C&E는 앞서 오는 2030년까지 8000억원을 투자해 탄소중립과 환경개선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세아시멘트도 ▲대기 배출 오염 저감을 위한 NOx 배출농도 감소 ▲대체연료 증대를 통한 탄소저감 ▲통합환경관리체계 구축 ▲안전강화를 위한 설비 개조 등 친환경 설비 투자에 오는 2025년까지 530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삼표시멘트는 시멘트 주요 생산설비인 소성로에 질소산화물 저감 장치를 설치하고 기존의 전기집진기를 여과집진기로 전환하는 등 오는 2027년까지 총 1400억원을 환경설비에 투자할 방침이다.

한라시멘트는 2·3호 예열기 개조에 1000억원을 투자하는 것을 비롯해 매년 친환경 설비 유지보수에 220억원 정도를 쓰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개방형 혁신으로 지역창업 생태계 건인”

중기부·지방시대위원회 창조경제혁신센터 공동 간담회 대내·외 협의 등 거쳐 구체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5일 경북 포항 체인지업그라운드에서 열린 ‘창조경제혁신센터 파트너대기업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방시대위원회, 대기업 등과 전국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중기부는 포항 체인지업그라운드에서 전국 19곳 창조경제혁신센터장, 파트너 대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조경제혁신센터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관련기사 L4면>

간담회에선 파트너 대기업과 개방형 혁신을 중심으로 한 혁신센터의 주요 성과를 청취하고 새로운 파트너십에 기반한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전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강원-네이버, 경기-KT, 경남-두산중공업, 경북-삼성전자, 광주-현대차, 대구-삼성전자, 대전-SK, 부산-롯데, 세종-SK, 울산-현대중공업, 인천-한진·KT, 전남-GS, 전북-효성, 제주-카카

오, 충남-한화, 충북-LG가 파트너십을 맺고 운영하고 있다.

빛가람(나주)과 포스코(포항)는 민간 자율형 센터로 별도 운영 중이다.

이영 장관은 “사회적 책임경영(ESG) 일환으로서 대기업이 지역 스타트업 지원을 지원하는 기존의 방식을 넘어 전략적으로 상호 수요를 충족하는 윈-윈

형태의 새로운 개방형 혁신을 통해 지역 창업 생태계를 건인해 나가야한다”며 “민간이 스타트업 생태계를 주도하고, 정부는 제도적·행정적으로 이를 뒷받침 해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창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개방형 혁신 체계 개편 ▲혁신센터 간 워킹 구축을 통한 지역 스타트업 공동 보육 체계 도입 ▲자생력 강화 등의 발전 방향이 제시됐다.

중기부는 이날 나온 내용들을 중심으로 대내·외 협의 등을 충분히 거쳐 구체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은 “지방의 혁신 중소기업이 지방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협력 허브인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할을 기대한다”면서 “지방시대위원회에서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 중소업계, 지역경제 활력위한 정책과제 건의

중기중앙회 김진태 강원도지사 초청간담회

중소기업계가 김진태 강원도지사에게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과제 13건을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오후 춘천세종호텔에서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김 지사를 비롯해 강원지역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최성규 강원중기청장 직무대리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현장 건의로는 ▲공동사업 일자리 지원 등 중기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강화 ▲모범 외국인근로자 포상제도 마련 ▲

사진 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공예 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중소기업제품 ‘협동조합 추천제도 등’ 적극 활용 ▲농공단지 생산품 수의 계약 시 현장확인 절차 개선 등 6개의 현안과제에 대한 집중논의가 이뤄졌다.

김기문 회장은 “고물가, 고금리 등 복합경제위기 속에서 많은 중소기업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특히, 지방 중소기업의 경우 사정이 더욱 어렵다”며 “공동사업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지원과 육성에 지자체가 나서야한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 기보, 기후문제 해결 동참... 국제기구 가입

환경문제 놓고 국제기구 금융부문 협력

기술보증기금이 국제기구에 가입하고 기후문제 해결에 동참한다. 기보는 유엔환경계획 금융 이니셔티브(UNEP FI)의 공식 지원기관으로 등록하고 탄소 회계 금융 연합체(PCAF)에 가입함으로써 기후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해 국제기구 금융부문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기보는 온실가스 감축 등 글로벌 기후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기업들의 활동을 촉진하고 시장에 기후변화 대응 시그널을 확산하기 위해 ▲기후변화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CFD)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 등 공신력 있는 국제 협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주요 글로벌 기후변화 이

니셔티브 가입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UNEP FI는 30년 이상 지속가능한 금융 의제를 발굴하는 등 파리 기후협약과 UN 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을 위한 금융산업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는 국제 협약으로, 전세계 506개 회사 및 153개 지원기관 등이 참여하고 있다.

PCAF는 금융기관, 기업, 비정부기구 및 기타 이해 관계자들이 탄소 배출량을 측정, 보고 및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로, 전세계 320여 개 금융기관이 가입해 있다. /김승호 기자

## 중진공, K-소비재 日 수출 가속화

라쿠텐그룹과 업무협약 체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한국 소비재의 일본 시장 진출을 추가로 돕는다.

중진공은 15일 서울 목동 중진공 사옥에서 라쿠텐그룹과 ‘중소벤처기업의 일본 전자상거래 시장진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내 중소기업이 보다 쉽고 빠르게 일본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협약 주요내용으로는 ▲라쿠텐 이치바 초기 입점 등록비 면제 및 컨설팅 제공 ▲일본 현지 물류창고 및 제반 플랫폼 서비스 지원 ▲공동교육 및 전용 판매지원체계 구축 등 플랫폼 입점 판

매부터 현지 물류까지 전자상거래 전반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 내용을 담았다.

중진공은 온라인수출 공동물류사업을 통해 국가별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과 함께 중소기업의 수출 물량을 집중하고 대형 물류사를 중개해 해외 배송 할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현지 풀필먼트 서비스 이용료를 지원해 배송기간 단축, 운송비 절감 등 물류 최적화를 돕고 있다. /김승호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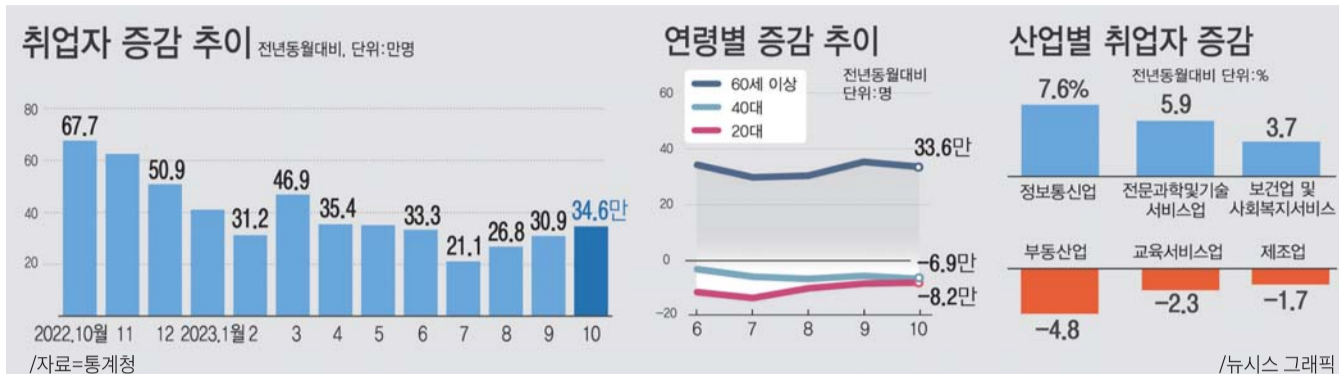
# 지난달 취업자 34.6만명 늘었지만... 20대·40대는 감소세

통계청, 총 취업자수 2876.4만명  
60대 이상에서 33.6만명 늘어나  
20~59세 1.6만명 소폭증가 그쳐

지난달 60세이상 연령대의 취업자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20~50대에서는 도합 오히려 4.8%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30대와 50대에서 늘었으나 20대와 40대가 1년 이상 지속된 고용 위축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영향이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23년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이상 취업자수는 2876만4000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34만6000명(1.2%) 증가했다. 증가폭이 8월(26만8000명), 9월(30만9000명) 등 3개월째 커졌다.

그러나 나이대별 고용은 불균형이 뚜렷이 나타났다. 취업자는 60세이상에서 1년 전보다 33만6000명 늘어났다. 그러



나 20~59세 연령층에서는 1만6000명 증가에 머물렀다. 20대(7만6000명↓)와 40대(6만9000명↓)에서 합계 14만5000명 쪼그라들었다.

특히 업무능력이 정점을 향하는 40대가 지난해 7월 이후 16개월 연속으로 감소했다. 20대 취업자 수도 12개월째 내림세를 보였다. 15~29세 청년층 수치(8만2000명↓) 또한 12개월 연속 줄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40대 남성은 주로

고용 위축이 이뤄지고 있는 제조업, 도·소매업, 건설 분야에 분포돼 있다"며 "최근 자영업자가 감소하는 부분도 40대 취업자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한편 30대와 50대에서 각각 11만명, 5만1000명 늘어나 20~40대 부진을 일정 부분 상쇄했다. 이로써 20대와 30·40·50대 취업자 수는 총 1만6000명 증가를 기록했다. 15~19세까지 포함하면 15~59세 증가폭은 1만명에 그친다.

산업별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3.7%),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5.9%), 정보통신업(7.6%) 등에서 증가했다. 1~10월 평균치 역시 정보통신업이 5만4000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만명 늘었다. 두 분야 모두 32개월째 취업자 수가 오른다. 도매 및 소매업도 1만1000명 늘며 53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비대면 문화 등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경기 변동 등

으로 도매 및 소매업 취업자가 감소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증가 전환이 구조변화가 안정 단계에 왔기 때문인지, 경기 변동으로 증가한 건지는 이번 달만 가지고 판단하기에 이르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제조업 취업자는 1.7% 줄어 10개월째 감소세를 지속했다. 제조업 취업자가 10개월 연속 줄어든 건 2020년 3월~2021년 3월 이후 처음이다. 자동차와 의류 분야가 증가했으나 전자부품과 기계, 금속에서 줄어들었다.

종사상 지위별로,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4만4000명, 임시근로자는 6만8000명 증가했다. 임시근로자가 늘어난 건 지난 2022년 5월 이후 17개월 만이다. 숙박·음식점업 분야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되고 도·소매업 취업자도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 지난달 車 누적수출 580억 弗... 33.9% 급증

산업부, 지난해 연간실적 돌파  
16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증가

올해 10월까지 자동차 수출이 전년 연간 실적을 돌파했다. 전기차 등 친환경 경차와 프리미엄 차량 등 고부가가치 차량 수출 증가가 수출 규모를 키웠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월~10월까지 자동차 수출 금액은 총 580억달러를 기록해 전년동기 대비 33.9% 상승했다.

이는 작년 연간 수출실적인 541억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지난 5월 '자동차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미래차 전환 및 수출 지원 대책'에서 밝힌 올해 수출 목표 570억달러 역시 상회하는 수준이다.

월간 기준으로 보면 자동차 수출은 작년 7월 이후 지난달까지 16개월 연속 전년동월 대비 증가세다. 올해 10월 수출액은 역대 10월 중 최고인 59억달러다. 수출 대수로 보면 22만5420대로 전년동월 대비 8.6% 상승했다.

특히, 현대 아이오닉5, 아이오닉6 등 전기차와 코나, 투싼, 팰리세이드 등 스포츠유틸리티(SUV), 프리미엄 차량 수

출이 확대되면서 수출단가 상승 추세가 두드러졌다.

전기차를 포함해 수소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승용 기준) 수출 대수는 전년동월 대비 7.9% 증가한 5만6793대, 수출 금액은 같은 기간 21.4% 증가한 17억5000만달러다.

실제로 우리나라 자동차 평균 수출단가는 2021년 차량 1대당 2만달러에서 2022년 2만1000달러, 올해 1월~10월까지 2만3000달러로 올랐다.

10월까지 수출 상위 모델을 보면, 트레일블레이저가 17만6123대로 1위를 차지했고, 코나(17만1494대), 아반떼(16만9541대), 트렉스(13만7700대), 니로(12만1009대), 투싼(11만8090대), 스포티지(11만2274대), 모닝(10만5056대)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지역별 자동차 수출을 보면, 북미 수출이 35억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46.9% 상승해 수출 증가를 주도했다.

자동차 생산은 34만1000대로 전년동월 대비 3.9% 상승했고, 올해 연말까지는 지난 2018년 이후 5년 만에 연간 생산 400만대 돌파가 예상된다.

내수 시장에서는 전년 동월 대비 2.

1% 감소한 14만1000대의 차량이 판매됐다. 특히, 하이브리드차 판매가 79% 성장하는 등 친환경차 시장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차는 11만6000대, 수입차는 2만4400대 팔렸다.

10월까지 내수 판매 상위 모델은 그랜저가 9만6672대로 가장 많았고, 이어 쏘렌토(6만8379대), 카니발(5만8695대), 스포티지(5만8028대), 아반떼(5만4394대)가 상위 5위를 차지했다.

오는 30일까지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완성차 업계에서는 최대 17%의 최대규모 할인을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내수 차량 판매 진척이 기대된다.

향후 국내 생산 확대도 예상된다. 울산·화성 등 신규 전기차 공장 투자를 비롯해 국내 완성차사의 생산시설 투자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산업부는 지난 7월 대구(전기차 모티), 광주(자율차 부품)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안정적 공급망 구축 지원과 동시에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확대, 전기차 부문 통상이슈 적극 대응 등을 통해 국내 자동차 업계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산업부, 한파대비 전력수급 점검 회의

수급 전망, 연료수급 계획 등 공유

국제유가 변동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전력당국과 전력 유관기관들이 올겨울 전력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이옥현 전력정책관 주재로 겨울철 전력수급관리 준비를 위한 종합 사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기간(2023년 12월 4일 ~ 2024년 2월 29일)에 앞서 올겨울 전력수급 전망, 연료수급 계획 등을 공유하고, 기관별 준비 현황을 발표했다.

올겨울 전력당국의 수급 관리는 녹

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갑작스러운 북극 한파 발생 가능성이 있고, 강수량도 전년보다 많을 것으로 보여 전력 수급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또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으로 국제 에너지 시장이 불안정해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옥현 전력정책관은 "갑작스러운 한파, 폭설로 인한 태양광 발전 감소 등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력거래소는 작년보다 많은 공급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기획재정부 공공혁신기획과장, 공공기관 담당자들이 중소기업기술마켓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 정석케미칼 등 10개 기업 '노사문화대상'

고용부, 대출금리 우대 등 혜택

고용노동부가 15일 HD현대로보틱스와 정석케미칼 등 10개 기업을 '2023년도 노사문화대상'으로 선정했다. 수상 기업에는 향후 3년간 정기근로 감독 면제, 은행 대출 시 금리우대 등 행정·금융상 혜택이 주어진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올해 노사문화대상에는 2021~2023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는 93개 기업 중 22개 기업이 신청했

다. 고용부는 서류심사를 통과한 12개 기업을 대상으로 현지실사 및 노사문화 사례발표 등을 개최해 대통령상 2곳을 비롯해 국무총리상 2곳, 장관상 6곳을 선정했다.

대통령상은 HD현대로보틱스와 정석케미칼이 수상했다. 또 국무총리상은 신성델타테크와 서진오토모티브, 고용노동부 장관상은 코미코, 나은요양병원, 롯데면세점제주, 푸드머스, 군포도시공사,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수상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HD현대로보틱스는 지난 2017년 현대중공업에서 분사한 산업용 로봇 제조업체다. 분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요인 및 대내외적 영향으로 인한 경영 위기를 노사 간 협력으로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2020~2021년 미·중 무역분쟁 및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위기 상황에서 노사 상호 간 신뢰를 바탕으로 2021년 단체교섭 시 기본급 동결로 임단협 조기 타결, 2022년 임금 무교섭 타결을 통해 위기를 타개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 60개 공공기관서 혁신중소 지원 나서

도로공사·기재부, 기술마켓 워크숍

한국도로공사와 기획재정부는 충북 청주시 오송컨벤션센터에서 60개 공공기관 임직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기술마켓 활성화를 위한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중소기업기술마켓은 공공기관이 혁신 중소기업의 기술, 제품을 심사·구매하고 중소기업에게 기술개발, 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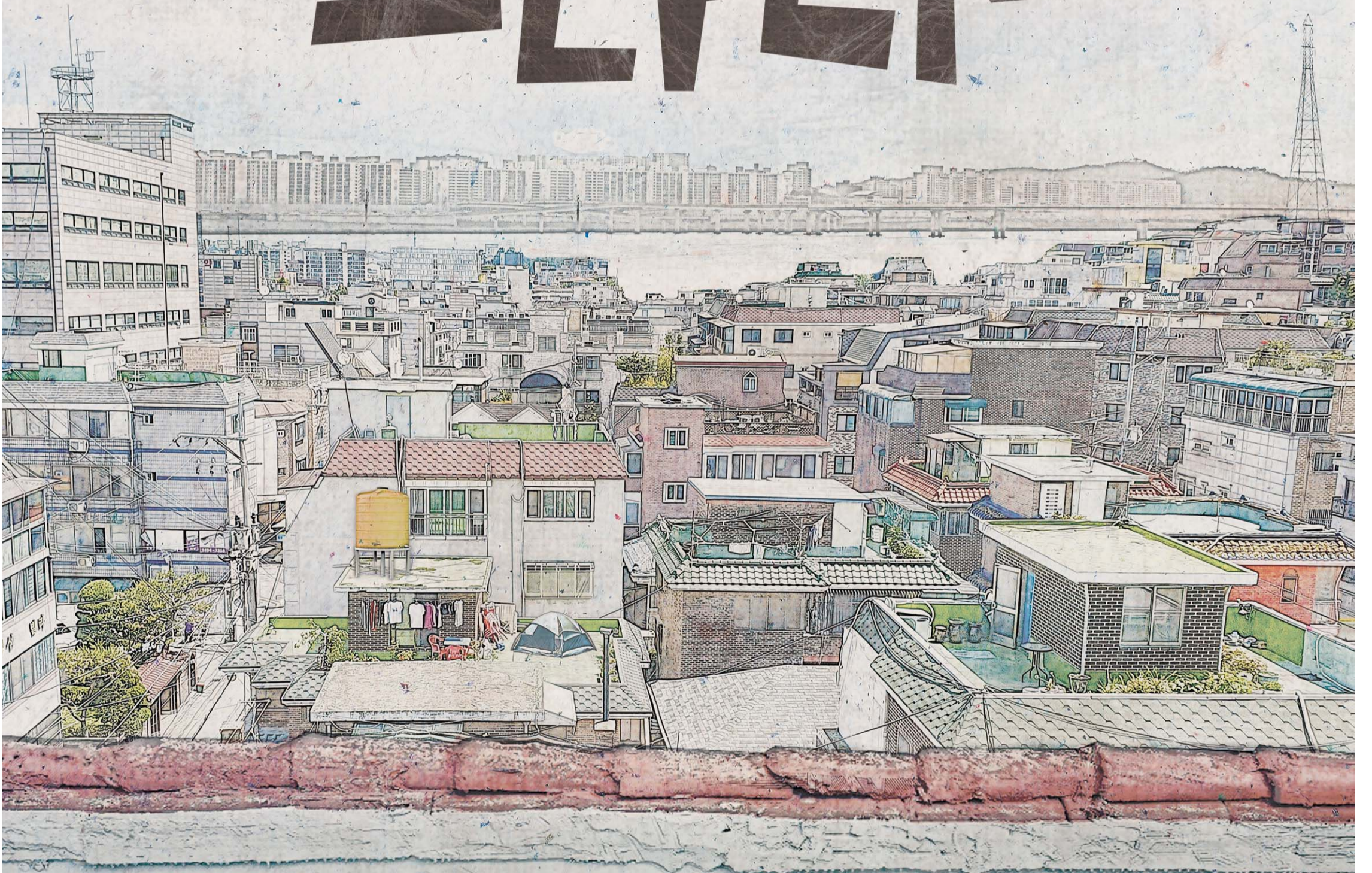
이번 행사에서 공사는 참여공공기관과 함께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 발굴 및 판로지원을 위해 '중소기업기술마켓'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한 곳으로 묶어 정보 제공의 효율성을 높이기도 했다. 이 밖에도 공사는 중소기업들이 '중소기업기술마켓'의 지원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휴게소 등 주요시설과 공사 홈페이지를 활용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구현제 기자 hjkoo@

# 골때리는 그놈들이 돌아왔다!

MUSIC DRAMA

# 망원동 브라더스



2022년 12월 1일 (목) ~ OPEN RUN 흥대 제이엘씨어터

원작 <망원동 브라더스> (나무옆의자 2013, 원작자 김호연) | 프로듀서 황기현 | 각색·연출 홍현우 | 음악감독 김은지 | 조연출 전예정 | 무대디자인 이창원  
조명디자인 김병철 | 무대제작 (주) 빛나 | 디자인 김리나 | 제작 극단 지우 | 주최·주관 극단 지우 | 기획 이제이컴퍼니·(주)브라더후드

출연 김준희 권오을 이호준 신정만 맹상열 김현 황원상 오치운 강태수 김초록 김영규 신현규 양현석 한병수 박창희 정다운 김민성 이연우

후원 나무옆의자 출판사 / (주)이엘엔터테인먼트 / 제이엘컴퍼니 / 이제이컴퍼니 / 예매처 인터파크 / 네이버 예약

# 글로벌 배터리 초격차 선도 위한 토론의 장 열려

‘포항시 국제컨퍼런스’ 개최  
배터리 전략·기술 교류하고  
글로벌 시장 비전·전망 발표

포항시가 글로벌 배터리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고 산학연 전문가들과의 기술 교류를 통한 배터리 산업 동향을 공유하고자 지난 14일 포스코 국제관 국제회의장에서 배터리 기술 초격차 선도 도시 포항을 주제로 ‘배터리 선도 도시 포항 국제 컨퍼런스 2023(POBATT 2023)’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이강덕 포항시장,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김병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대표, 정왕모 LG에너지솔루션 상무, 박주영 IMERYS 대표, 이진욱 성일하이텍 전무 등 국내외 기업인과 산학연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포스코국제관 국제회의장에서 배터리 기술 초격차 선도 도시 포항을 주제로 ‘배터리 선도 도시 포항 국제 컨퍼런스 2023’ 참석자 단체 사진.

이번 컨퍼런스의 기조 강연에 나선 정왕모 LG에너지솔루션 상무는 ‘LG 에너지솔루션의 소재 및 배터리 기술’이란 주제로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전략과 기술을 발표했다. 이어 팔 룬데(Pal Runde) 노르웨이 배터리협회장, 안드레아스 마이어(Andreas Maier) 모로우(Morrow) 배터리 부사장은 노르웨이 배터리 산업을

소개하고 유럽 시장을 통해 본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비전과 전망을 발표했으며, 이날 행사에는 주한 노르웨이 대사관 로저 마틴센 상무참사관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 2020년부터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지속적으로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만들어 왔다”며, “컨퍼런스를 통

해 구축한 탄탄한 네트워크가 비즈니스로 이어지도록 전시와 토론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대표 컨퍼런스로 규모와 내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포항시는 경북도와 함께 배터리 규제자유특구를 시작으로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 준공 및 운영, 사용 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등 많은 국책사업을 유치해 왔으며, 지난 7월 이차전지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령을 받은 바 있다.

포항시와 경북도는 전무후무한 4년 연속 우수특구로 선정된 배터리 규제자유특구의 성과에 이어 국내 최초로 전면적 최소 규제(네거티브)가 적용되며,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혁신특구에도 도전하면서 배터리 허브 도시로의 위상을 다져갈 계획이다. /포항(경북)=이상호 기자

leesh0412@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밀양시

### 신재생에너지에 국비 7억 확보

밀양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지역 주민의 에너지 요금 절감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4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7억 13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특정 지역의 공공·주택 등에 태양광, 태양열 등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한국에너지공단 심층 평가를 거쳐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총사업비 15억 200만 원 가운데 국비 7억 1300만원을 지원받고 시비 5억 3500만원을 투입해 내년 1월부터 태양광 173개소(526kW), 태양열 44개소(264㎡)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밀양(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 전남도, 공익직불금 4592억 확정 전국 지급액 19%... ‘최대 규모’

21.3만명 농업인·법인에 지급  
요건 집중 점검해 부정수급 차단

전남도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4592억원을 최종 확정하고 11월 말부터 지급한다.

올해 지급 규모는 전국 지급액 2조 3696억원의 19%로 가장 많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공익직불금은 사·군을 통해 농업인 계좌 확인을 거쳐 11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21만3000명의 농업인·농업법인에 4592억원을 지급한다. 이 중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8만4000명에 1008억원, 농업인(법인 포함)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은 12만9000명에 3452억원에 달한다.



서영암농협 친환경벼 재배 집적화단지 전경. /전남도

전남도는 공익직불금 지급에 앞서 올해 4월부터 6월 초까지 신청·접수를 받았다. 6월부터 10월 말까지 대상 농지, 농업인, 소농직불금요건 등에 대한 자격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부정수급을 차단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과는 업무협업체를 구성·운영해 직불금 37억원(2만3000명) 감액을 사전에 방지해 정부의 적극행정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 “5000억 전남 미래혁신산업펀드 조성”

김영록, 예산안 제출 관련 시정연설

김영록 전남지사는 15일 도의회에서 2024년 예산안 제출 관련 시정연설을 통해 “위대한 ‘전라도 정신’으로 새로운 미래 100년을 힘차게 열어가면서 세계를 향해 더 높이 비상하겠다”고 도정 운영 방향을 밝혔다.

그러면서 “글로벌 초격차 시대를 주도할 미래 성장동력 확보로 세계가 주목하는 전남을 만들기 위해 5000억 원 규모의 ‘전남 미래혁신산업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첨단분야 벤처·창업기업을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김 지사는 글로벌 초격차 시대를 주도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이차전지·데이터·바이오 등 최첨단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5일 오전 전남도의회 제37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예산안 제안 설명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전략산업의 허브 도약’, ‘기후 위기 시대 대한민국 청정에너지 중심지로서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 선도’, ‘천혜의 자연경관과 역사·문화 자원을 기반으로 세계 속의 남해안 관광·문화벨트 조성’, ‘농수축산산업의 AI 첨단산업화 매진’, 지역 발전의 새로운 기폭제가 될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5가지를 제시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 경주시, 申 시안시 대표단과 교류협력 논의

내년 자매결연 30주년 행사 준비

주낙영 경주시장이 중국 산시성 시안시 대표단을 예방하고 양 도시 간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경주시는 허원취엔 중국 산시성 시안시 당 비서장(상임 부시장급) 일행이 11월 15일 경주시를 찾아 주낙영 시장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이날 밝혔다. 중국 시안은 인구 1300만의 중화문명의 발상지이자 1100여 년 간 중국 13개 왕조의 수도였던 곳으로 ‘장안(長安)’이라는 옛 지명과 진시황릉 병마용어로 잘 알려진 도시다.

경주시와 시안시, 양 도시는 이 같은 공통점을 바탕으로 지난 1994년 자매도시 협정을 맺고 경주 신라문화제와 시안 성벽국제마라톤대회 등에 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두 도시

는 내년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경주시 투자환경 홍보영상 상영과 산업현황 소개 및 시안시 문화관광 및 내륙철도산업 현황 소개 순으로 진행하며 향후 두 도시 간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긴밀한 논의가 이뤄졌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시와 시안시는 지난 30년 간 돈독한 우정을 쌓으며 한중 양국의 우호 협력 증진에 큰 기여를 해왔다”며, “두 도시가 앞으로도 활발한 교류로 새로운 30년의 한중 우호를 내딛자”라고 강조했다.

허원취엔 시안시당 비서장은 “경주시의 APEC 유치 지지를 표명한다”며, “주낙영 시장을 비롯한 경주시 대표단이 내년에도 시안시를 방문해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라고 화답했다. /경주(경북)=이상호 기자

## 부산시, 고액·상습 체납자 557명 공개

누리집·사이버지방세청 게재

부산시는 15일 부산시 누리집과 사이버지방세청 등을 통해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507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50명 등 총 557명(총 체납액 278억원)의 신규명단을 공개했다.

명단공개는 출국금지, 공공정보 등록 등 체납자에 대한 간접 강제 제도 중 하나로,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 자치단체에서 동시에 시행하고 있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

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전국 합산 1천만 원 이상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멸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내지 않은 체납자들이다.

부산시 누리집, 부산시사이버지방세청 및 위택스 등에 15일 오전 9시부터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 등이 공개되며, 법인이 체납하면 법인의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또한, 명단공개 직후 명단공개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할 예정이다.

/부산=정병호 기자 metrobusan@

진주시

### 노인일자리 지원에 2.2억 투입

진주시가 13일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단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2억2천만 원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는 노인들이 소규모 매장을 공동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시장형 사업단의 시설을 구축하는 인프라 지원 공모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하여 1차 서면심사와 최종 발표심사를 거쳐 우수사업 5곳(서울 금천구, 서울 송파구, 경남 진주시, 전남 영암군, 전북 익산시)을 선정했다. /진주(경남)=정병호 기자

영양군

### ‘지역농업발전 선도인상’ 수상

오도창 영양군수는 15일 농협중앙회 본관 대강당에서 농민 실의 증진과 농촌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023지역농업발전 선도인상’을 수상했다.

‘지역농업발전 선도인상’은 2003년 제정돼 지역농업 구조 개선, 농산물 생산·유통 경쟁력 강화,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한 공적자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농협중앙회가 주관하고 있다.

오도창 군수는 지역 특성과 영양군의 당면한 문제를 바로 알고 농촌 위기 극복과 발전에 큰 관심을 기울인 결과 경상북도 내에서는 유일하게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남해군

### 노인회관 준공... 15.7억 투입

남해군은 14일 ‘남해군 노인회관’ 준공식을 개최했다.

남해군 노인회관은 대한노인회 남해군지회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총 사업비 15억 7500만 원(특별교부세 10억, 경상남도 특별조정교부금 1억, 군비 4억 7500만원)이 투입됐다.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지상 2층, 건축면적 396.49㎡ 규모로 건립되었다. 1층에는 커뮤니티실과 사무실 및 휴게실이, 2층에는 교육실이 자리 잡았다. /남해(경남)=이도식 기자



# 글로벌 악재 속 식품업계, 3분기 실적 날았다

농심 3분기 매출 8559억 104% ↑  
영업이익 50% 이상 해외서 거둬

삼양식품·오뚜기·대상 수익 개선  
외식물가 상승에 반사이익 분석도

식품업계가 글로벌 경기 둔화와 지속적인 원부자재 비용 상승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올 3분기 호실적을 기록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라면업체들은 국내에서 일부 제품에 대한 가격을 인하했지만 해외에서 'K-푸드'의 인기로 힘입어 매출이 늘어났다. 농심은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 8559억 원, 영업이익 557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03.9%, 5.3% 증가한 수치다. 3분기 출시한 떡대강, 신라면더레드 등 신제품이 인기몰이하면서 매출을 견인했다. 특히 영업이익 가운데 50% 이상을 해외에서 거뒀다는 게 사측의 설명이다.

같은 기간 삼양식품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8.5% 상승한 3352억 원, 영업이익은 124.7% 오른 434억 원을 기록했다. 오뚜기의 매출은 9087억 원, 영업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라면 매대의 모습. /뉴스시

이익은 82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6%, 87.6% 늘었다. 케첩, 마요네스 등 전통적인 1등 제품 및 오뚜기밥, 컵밥 등 HMR의 주요 제품 매출의 호조와 해외법인 등 매출증가, 원가율 개선 효과 등이 꼽혔다.

대상은 조미료, 장류, 신선식품 등 사업의 효율성 확대와 원가절감, 판촉 자원 효율화로 수익을 개선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상은 올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이 1조123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51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3% 늘었다.

풀무원은 올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이 746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은 219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5.2% 증가했다. 국내사업은 식품서비스유통사업이 급식, 컨세션, 휴게소 신규 수주 및 재계약을 통해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을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식품업체들은 이처럼 호실적을 기록했음에도 속내가 복잡하다. 기업이 원재료 가격 상승을 이유로 과도하게 가격을 올려 물가상승(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그리드플레이션'(Greedflation)의 주범으로 지목당할까 우려해사다.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여파로 급등했던 국제 곡물 가격이 안정세를 되찾았지만, 제품 가격에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식품 업체들은 소맥분, 팜유 등 일부 원자재 가격은 내리고 있으나 다른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있어 제품 가격을 쉽게 내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6개월~1년 단위로 계약하는 원재료 구매 구조 특성상 당장 국제 곡물가격 등이 안정을 보여도 실제 실적에 반영되는 데는 시차가 발생한다고도 덧붙였다.

식품업계가 고물가 상황에서 반사이익을 얻는 것은 급등한 외식가격 탓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외식비가 뛰면서 상대적으로 가공식품이 대체재로 꼽힌다는 의미다.

한 관계자는 "외식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해 오히려 집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가공식품의 가격 경쟁력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지난 2년간의 가격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되고, 소비자들도 필수소비재에 대한 가격 저항이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홈플러스가 15일 서울 등촌동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강서점에서 '홈 메가푸드워크' 2주차 행사를 소개하고 있다. /홈플러스

홈플러스

## 농협 한우·호주산 채끝 등 메가푸드워크 품목 공개

홈플러스가 '코리아세일페스타'에 참가해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홈플러스는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 '홈 메가푸드워크' 2주차 행사 품목을 15일 공개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9일부터 '홈 메가푸드워크' 행사를 통해 인기 품목을 최대 50% 할인 또는 1+1로 판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9~12일 '킹크랩' 매출은 지난 2022년 동기 대비 14배 증가했다. 지난 11~12일 '캐나다산 보리' 먹고 자란 돼지 냉장 삼겹살·목심' 매출은 2배 이상 증가했다.

2주차 행사에서도 홈플러스는 다양한 먹거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자숙 랍스터 ▲냉동 생새우 ▲자외선 살균 백진미 오징어채 ▲농협안심한우 등심·국거리·불고기·양지 ▲호주산 채끝 ▲미국산 냉동 꽃삼겹살 등이 포함된다.

해양수산부와 함께 '2023 대한민국 수산대전'도 마련했다. ▲생물 고등어 ▲손질 오징어 ▲제주 생물 갈치 ▲완도 전복 등에도 반값 할인이 적용된다.

아울러 김장철을 앞두고 '홈 김장대전'도 열릴 예정이다. /이청하 기자

# K-푸드 콘텐츠로 세계 공략 삼양애니, 김학준 디렉터 영입

CJ ENM 출신... 와썹맨 등 제작 해외시청자 타겟 K-컬처에 집중



삼양애니는 김학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영입을 기점으로 글로벌 K-푸드 콘텐츠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슬로건으로 '먹는 즐거움에서 보는 즐거움으로'를 공개하며 향후 방향성을 제시했다. 삼양애니는 앞서 지난 9월 비전선포식을 통해 전 세계에 K-푸드의 즐거움을 알리는 '이터테인먼트(EATertainment)'를 실현하겠다는 비전을 공개한 바 있다.

삼양라운드스퀘어의 자회사 삼양애니가 김학준 전 스튜디오물류랄라 CP(책임프로듀서), 샌드박스네트워크 CCO(최고콘텐츠책임자)를 신임 총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영입했다고 15일 밝혔다.

김학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사진)는 CJ ENM의 제작PD 출신으로 스튜디오물류랄라(SLL)에서 CP를 맡아 '와썹맨', '워크맨', '시즌비시즌' 등을 제작했다. 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콘텐츠는 MZ세대를 중심으로 높은 인기를 끌며 구독자 수 600만명, 누적 조회 수 8억 회 돌파 등 대성공을 거두었다. 이후 샌드박스네트워크 CCO로 자리를 옮겨 샌드박스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콘텐츠 프로덕션 환경 조성 등에 기여한 바 있다. /신원선 기자

삼양애니는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해 해외 시청자를 타겟으로 한 차별화된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먹는 행위에 집중된 기존 푸드 콘텐츠와 달리 삼양애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K-컬처 콘텐츠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원선 기자

# SSG닷컴 쓱데이 매출 '쾌조 스타트'

2년전 대비 매출 42% 증가

신세계그룹의 대표 이커머스 플랫폼 SSG닷컴과 W컨셉이 함께 전개하고 있는 '쓱데이'가 쾌조를 보이고 있다.

SSG닷컴(쓱닷컴)과 W컨셉은 지난 13일 시작한 '쓱데이'에서 행사 첫 날부터 호실적을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행사 첫 날 쓱닷컴의 매출은 지난 2021년 쓱데이 첫 날과 비교해 42%, 주문 회원수는 20% 증가했다.

오전 9시와 오후 3시에 열린 한정수량 '타임딜'에서도 완판이 이어졌다. 쓱닷컴은 오는 19일까지 '타임딜'을 통해 ▲미우미우 가방 ▲랩그로운 다이아몬드 반지 ▲아미 맨투맨 등을 특가로 선보일 계획이다.

'카테고리 데이'의 적립금 선착순 응모 행사도 빠르게 마감됐다. 쓱닷컴은



지난 13일 오후 7시 '쓱데이 스페셜 라이브방송'이 있었다. /쓱닷컴

일별 특정 제품군을 1개 지정해 기획 상품을 제안하고 당일 구매 고객에게 SSG 머니를 선착순으로 증정하고 있다.

이번 행사 첫 날 '뷰티 데이' 매출은 지난 2021년 쓱데이 첫 날 대비 134% 늘었다. 쓱닷컴은 오는 15일~19일 ▲리빙·유아동 ▲스포츠 ▲푸드 ▲명품잡화 ▲패션 데이를 순서대로 이어간다. /이청하 기자 mlee236@

# 롯데웰푸드, 쉐푸드 요리책 4종 출시

중화요리 고추잡채·마라상귀 등

롯데웰푸드(옛 롯데제과)가 요리소스 가정간편식(HMR) '쉐푸드(Chefood) 요리책'을 선보인다. 쉐푸드 요리책과 식재료만 있으면 10분만에 전문점 수준의 요리를 간단하게 완성할 수 있다.

쉐푸드 요리책은 집밥족 증가 등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는 소스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출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18년 약 1조9000억원이었던 소스류 국내판매액 규모는 지난해 약 2조 6800억원까지 성장했다. /신원선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2001아울렛 중계점 등에 설치

이랜드리테일이 매장을 확장해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

이랜드리테일의 패션 브랜드 'NC 베이직'은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주요 거점 지역에 매장 5개를 동시에 추가한다고 15일 밝혔다. ▲2001아울렛 중계점 ▲NC백화점 불광점 ▲NC백화점 수원터미널점 ▲NC백화점 중앙로역점 ▲NC백화점 서면점 등이 해당한다.

이를 통해 NC 베이직은 패션 시장에서 '가성비 패션'을 선도할 방

침이다.

앞서 지난 9월 이랜드리테일은 송파점, 아담점, 평촌점 등 NC 백화점 3곳에 'NC 베이직 파일럿 매장'을 열기도 했다. 파일럿 매장은 고물가 시대에 고객의 의류 지출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제품 가격을 경쟁사 대비 1/3로 낮춰 선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이랜드리테일은 원단을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매입해 원가를 절감했다. 이랜드리테일의 원단 전문가가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상해, 광저우,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에서 원단대량 생산 공장을 발굴한 결과다. /이청하 기자

11번가

## 3분기 누적매출 6019억 전년 대비 27.6% 급성장

11번가가 3분기까지 매출 성장과 영업손실 축소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4일 공식된 SK스퀘어의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11번가의 2023년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은 6019억원으로 전년 동기(4717억원) 대비 27.6% 증가했다.

3분기 누적 영업손실은 910억원으로 전년 동기(1060억원) 대비 150억원(14.1%) 감소했고, 당기순손실은 85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756억원(SK스퀘어 공식기준) 보다 늘었다. 당기순손실의 증가는 지난해 3분기 반영된 일시적 장부평가액 변동에 따른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11번가의 3분기 기준 매출액은 1887억원으로 지난해 3분기 대비(1899억원) 소폭 감소(-0.6%, -12억원)하면서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11번가 측은 "지난 6월 오픈마켓(OM) 사업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면서 3분기는 수익성 기조 안정화에 집중했고 그 과정에서 일부 매출 감소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3분기 영업손실은 325억원으로 전년 동기(362억원) 대비 적자규모를 37억 원 줄였다. /최빛나 기자 vitna@

# G마켓-브랜드사, 가성비·친환경에 공동기획상품 ‘히트’

‘빅스마일데이’ 기획상품 인기  
바디워시·물티슈 등 새롭게 출시  
고객 니즈 파악해 패키지 디자인  
타임딜 형태 깜짝 판매 모두 소진



아이러브베베 물티슈. /G마켓

11월 쇼핑 대목을 겨냥해 G마켓이 브랜드사와 협업해 내놓은 ‘공동기획상품’이 연일 히트를 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G마켓과 옥션이 ‘빅스마일데이’에서 브랜드사와 공동 기획으로 제작한 단독 상품들이 히트상품 대열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빅스마일데이’에는 G마켓과 옥션이 오는 19일까지 진행하는 연중 최대 쇼핑 축제다.

G마켓은 아모레퍼시픽과 손잡고 ‘빅스마일데이’ 전용 공동기획상품 ‘해피바스 필쏘굿 바디워시(760g)’를 출시했다. 기존 G마켓에서 판매되던 해피바스 바디워시 베스트상품이 과일향이 났던 것과 차별점을 두기 위해 라벤더향과 프리지아향 2종을 선보였다. 이는 G마켓과 아모레퍼시픽이 판매 데이터를 분석해 고객 선호도를 적용한 결과라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아울러, 쟁여두기용 중저가상품이 인기가 많은 ‘빅스마일데이’의 행사 성격도 반영했다. 기존 해피바스 바디워시 용량을 900g이 아닌 760g으로 조정하면서 판매가를 1만원 대로 낮췄다. 해당 제품은 빅스마일데이를 시작한 지난 6일 하루 동안 약 1300개가 판매됐다.

물티슈 브랜드 ‘베베숲’과도 빅스마일데이 전용 신상품 ‘뉴(new) 베베숲

프라임’을 출시했다. 통상 약 2~3년 주기로 신제품을 출시하는 물티슈 제조사에서 빅스마일데이의 브랜드 파워를 믿고 행사 전용 상품을 새롭게 출시한 사례다.

‘new 베베숲 프라임’은 기존 베베숲 자사물의 스테디셀러였던 ‘프리미어’ 제품의 리뉴얼 버전이다. 70gsm(Gram Per Meter·평량)의 고평량 제품에 4겹 프리미엄 엠보싱 원단을 사용해 넉넉한 사이즈에 물기를 많이 머금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사용하기 편리한 ‘캡’ 상품으로 20팩 묶음을 쿠폰 활용 시 2만990원에 구입할 수 있다.

이번 베베숲 신상품은 고객의 ‘짹’ 목소리가 반영된 맞춤형 상품이기도 하다. 빅스마일데이를 상징하는 보라색 계열 색상이 패키지에 적용했고 채도를 낮춰 심미성을 높였다. 최근 친환경을 강조하는 ESG 경영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것도 반영해 라벨이 없는 무라벨 캡이다. 이로써 연간 15톤의 플라스틱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리배출도 쉬워졌다.

G마켓 관계자는 “물티슈 고객들의 구매후기를 분석해 고객들이 감각적인 패키지와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선호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제조사가 먼저 빅스마일데이를 위한 전용 신제품을 출시한 사례도 있다. 중소기업인 ‘아이러브베베’는 G마켓, 옥션을 공략하기 위한 전용 물티슈인 ‘시그니앙 오가든’을 특별 제작해 빅스마일데이 행사 날짜에 맞춰 판매를 시작했다. 해당 제품은 제조사에서 빅스마일데이를 위해 제작한 상품으로, 행사 이후에도 오직 G마켓과 옥션에서만 판매할 예정이다.

이번 ‘빅스마일데이’는 단독 판매상품도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다. G마켓은 오리온과 함께 빅스마일데이에 맞춰 단독 플레이버 상품 ‘다이에 샌드 초코스프레드’를 판매하고 있다. 지난 7일 G마켓에서 타임딜 형태로 깜짝 판매해 3시간 만에 준비물량 약 700개를 모두 소진했다.

한국마즈와 기획 제작한 반려동물용 영양식 세트 ‘시저 쇠고기12팩+바이트미 2종 프로모션팩’ 역시 단독 판매 상품이다. 온라인에서는 G마켓과 SS G닷컴에서만 판매한다.

G마켓 관계자는 “이번 빅스마일데이 전용 상품은 기존 상품의 품질을 유지하면서 가성비 높게 제작하기로 브랜드사와 협의한 것이 고물가 속 고객의 요구와 잘 맞았다”며 “가치 있는 상품을 찾는 고객을 위한 빅스마일데이 전용 기획상품을 꾸준히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

## 빈대 물림 “냉찜질·병원 방문하세요”

과도하게 긁으면 2차 감염 이어져



나필락시스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대서울병원 피부과 노주영 교수(사진)는 “빈대에 물렸다고 해서 큰 불안에 떨 필요는 없다”며 “하지만 가려움증의 정도가 매우 심할 수 있고 가려움증 때문에 피부를 과도하게 긁다보면 2차 감염이나 상처가 생길 수 있어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40여 년 전 완전히 사라졌던 빈대가 전국에서 출몰하며 ‘빈대 주의보’가 내려졌다. 피부과 전문의는 빈대에 물렸다면 냉찜질을 하고, 만일 가려움증이 심하거나 소아라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을 것을 권했다.

국내 빈대 연구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약 10년간 전국에서 접수된 빈대 관련 신고는 약 20건에 그친다. 그런데 최근 단 한 달만에 전국에서 30건이 넘는 빈대 신고가 잇따랐다. 서울에서도 절반 이상의 지역에서 빈대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당분간 빈대 ‘안전지대’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우나, 기숙사뿐 아니라 지하철에서도 빈대가 나타나며 언제 어디에서 빈대에 물려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며 공포감이 함께 확산되고 있다.

빈대에 물렸을 때는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 빈대에 물렸다고 곧바로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선 물린 피부가 빨갱게 부어오르면서 가려움증이 생기는데, 이 가려움증의 정도가 심해 수면 장애 등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은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 사람에 따라서는 매우 드물지만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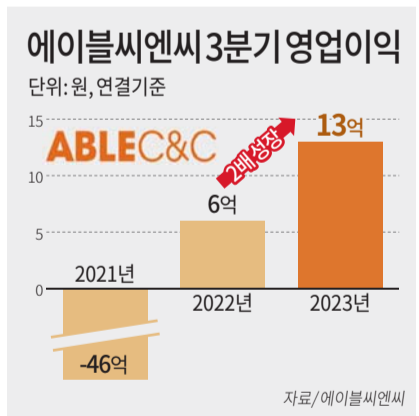
이어 노 교수는 “빈대에 물렸을 때 빨갱게 부어오르고 가려운 증세를 가라앉히는 간단한 방법으로는 물린 부위에 얼음팩을 부드럽고 얇은 수건으로 싸서 냉찜질을 하고, 가려움증이 심하다면 의사의 권고에 따라 국소 스테로이드를 바르거나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빈대에 물린 상처는 대부분 시간이 지남에 자연스럽게 치료되지만 피부가 약하고 가려움에 예민한 소아나 기저 피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피부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고 상처가 2차 피부염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 3분기 영업이익 13억... 전년비 2배 ‘썰렁’

에이블씨엔씨

올 3개 분기 ‘연속 흑자’ 기록해  
해외·국내 온·오프라인 성장세



글로벌 뷰티 기업 에이블씨엔씨가 올해 3분기 해외 및 국내 온·오프라인 시장 모두에서 성장하고 있다.

에이블씨엔씨는 올해 3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13억원으로 기록했다고 지난 13일 공시했다. 지난 2022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653억원, 상각 전 영업이익은 41억원으로 지난 2022년 동기 대비 각각 11.4%, 35.1% 증가했다.

에이블씨엔씨는 올해 3개 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두 자릿수 매출 성장률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자사 브랜드

고 있다. K-뷰티의 불모지로 여겨졌던 유럽에서도 3분기 누적 기준 매출이 지난 2022년 동기 대비 131.1% 증가했다.

국내 시장에서는 점포 재정부, 신규 매장 추가, 멤버십 확대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왔다. 이와 관련 관광 특구이자 K뷰티 1번지로 알려진 서울 명동에 위치한 점포를 ‘명동 메가스토어’로 새롭게 단장했다. 또 상반기에는 서울 미사플러스 행복한 백화점, 미사 초공진 이마트 인천연수점, 미사플러스 홈플러스 부산정관점 등 신규 매장을 선보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오프라인 매장의 성과를 나타내는 주요 지표인 ‘동일매장매출’ 성장률이 지난 2022년 동기 대비 평균 18.1% 증가해 가파른 성장세가 나타났다. /이청하 기자 mlee236@



도미노피자 “육즙 가득 스테이크 토핑”

피자 프랜차이즈 도미노피자가 육즙이 가득한 프리미엄 스테이크인 브리스킷 스테이크를 토핑으로 얹은 ‘브리스킷 바비Q’를 오는 17일 출시한다. 이번에 선보이는 ‘브리스킷 바비Q’는 부드럽게 익힌 차돌 양지에 4가지 페퍼(블랙, 핑크, 화이트, 그린)를 시즈닝한 브리스킷 스테이크를 주요 토핑으로 사용해 부드럽고 깊은 풍미를 자랑한다. /신원선 기자

조아제약  
“어린이 면역력 챙기세요!”

매일유업  
“어메이징 오트” 체험 캠페인

조아제약이 어린이 면역력과 구강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신제품을 선보인다. 조아제약은 ‘젤리잘크톤 튠튼&항균 프로폴리스’를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젤리잘크톤 튠튼&항균 프로폴리스’ 아연, 그린프로폴리스 등을 함유하고 있다.

탱글탱글한 젤리 제형으로 어린이들이 흘리지 않고 편하게 섭취할 수 있다. 스틱포 형태로 휴대하기 쉬운 것도 특징이다. /이청하 기자

매일유업의 오트(귀리) 음료 브랜드인 ‘어메이징 오트’가 신제품 ‘커피’와 ‘초콜릿’ 출시를 기념해 10만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캠페인 ‘어메이징 오트, 어메이징 초이스’를 펼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총 두 개의 이벤트로 진행된다. 첫 번째 이벤트는 28일까지 진행되며, 참여자가 개인별 성향을 알아보는 테스트에 참여하면 이에 어울리는 어메이징 오트 제품을 추천받을 수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대웅제약, 자체 개발신약 등 中 진출 속도

대웅제약이 중국 내수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웅제약은 지난 6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6회 중국 국제수입박람회’에서 중국 의약품 수출입 전문기업 메

헤코 인터내셔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웅제약의 자체 개발 신약과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전체 품목들이 중국에 진출하게 된

다. 앞서 지난 8월에도 대웅제약은 메헤코와 중국 요녕 공장에서 생산하는 현지 의약품 뉴란타(제산제)에 대한 중국 전역 유통과 판매 총판 계약을 맺은 바 있다. 메헤코는 의약품 수출입을 전문으로 하는 중국 내 첫 기업이다. 메헤코와 협력 관계를 맺은 대형 의료 기업은 중국 내외에 60개 이상 있다. /이청하 기자

2023 뉴테크놀로지 포럼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혁신의 트리거

2023. 11. 22 (수) 오후 2시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기조강연: **하토가이 준** 한국후지필름BI 대표

■강 연: **이건복** 마이크로소프트 상무 / **김상윤** 중앙대학교 교수 / **오경석** 영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행사명 : 2023 뉴테크놀로지 포럼

◎ 일시 : 2023년 11월 22일(수) 14~18시

◎ 주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문의 : 2023 뉴테크놀로지 포럼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포럼 참석 선착순 100명에게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 주제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혁신의 트리거

◎ 장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 5길 19 페럼타워 3층 페럼홀

◎ 등록 : 사전등록 무료, 현장등록 5만원 (당일 카드결제 가능)



**이창용 한은 총재, BIS 글로벌금융시스템총 의장 선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국제결제은행(BIS) 글로벌금융시스템위원회 의장으로 선임됐다. 글로벌금융시스템위원회는 세계 금융시스템 이슈를 논의하는 싱크탱크(Think Tank) 역할을 하는 곳으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임기는 오는 2026년 11월까지 3년이다.

/한국은행



**KB국민은행-서울대학교, 공동 발전 위해 '맞손'**  
KB국민은행은 지난 14일 서울대학교와 양 기관의 공동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과 이재근 KB국민은행장 및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KB국민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오는 12월 서울대학교 내 아시아연구소 1층에 서울대학교지점을 개점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KB손해보험, 지능형 로봇 손해보장사업 나서**  
KB손해보험이 지능형 로봇 손해보장사업에 나선다. KB손해보험은 지난 14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국로봇산업협회에서 지능형 로봇 손해보장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는 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행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KB손해보험



**광동제약, 임직원 대상 청렴윤리경영 교육**  
광동제약이 정도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광동제약은 지난 14일 서울 광동제약 본사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윤리경영 교육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청렴윤리경영 교육은 사내 윤리준법경영의식을 확대할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광동제약



**코웨이, 서울 강서초에 '청정학교 교실숲 제5호' 조성**  
코웨이가 서울 강서초등학교에 '코웨이 청정학교 교실숲 제5호'를 조성했다. 15일 코웨이에 따르면 자사 임직원 자원봉사단 20여명과 함께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강서초등학교 20개 학급에 공기정화식물 총 491그루를 전달했다.

/코웨이

**파이팅 외치는 리더들**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호텔에서 열린 '2023 감사(監事) 리더스 써밋' 두번째 모임에서 금융권 감사들이 포즈를 취했다. 앞줄 왼쪽부터 이현철 우리카드 상근감사, 송윤진 신한투자증권 상근감사, 구경모 DGB대구은행 상임감사, 김형남 다올투자증권 상임감사,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 이장규 메트로미디어 대표이사, 배준석 전국은행연합회 감사, 조성래 BNK부산은행 상근감사, 도종택 롯데손해보험 최고감사책임자.

/손진영기자 son@metroseoul.co.kr



**포스코그룹, '벤처플랫폼'으로 지역균형발전 방안 모색**

**지방시대위원회-중기부와 협력 대·중企 상생과 지역기반祉 육성**

포스코그룹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가 포스코 고유의 벤처 육성 생태계인 '포스코 벤처플랫폼' 사례를 통해 지방경제 혁신과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포스코그룹은 15일 경북 포항 소재 포스코그룹 벤처육성 시설인 '체인지업그라운드'에서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과 이정현 부위원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강덕 포항시장, 김성섭 대통령비서실 중소벤처비서관을 비롯해 전국 19개 창조경제혁신센터장과 대기업 14곳의 벤처 육성



15일 포스코그룹 벤처육성시설인 포항 체인지업그라운드에서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장 간담회 자리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전담 임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포스코그룹은 간담회에서 그룹 고유의 벤처 육성 생태계인 '벤처플랫폼' 추진현황과 그룹이 보유한 산

학연 인프라 강점 및 이를 통한 벤처육성 성공사례 등을 공유했고 주요 국정 과제인 지방 소멸 이슈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전략적으로 상호 윈-윈하는 새로운 개방형 혁신을 통해 민간 주도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정부가 제도적·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창업생태계를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진 포스코홀딩스 산학연협력담당관은 "포스코그룹은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해소에 부응해 그룹 고유의 벤처플랫폼과 이를 연계한 신성장 사업을 지속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현대차, 교통사고 피해 유자녀 지원**

**후원금 1억... 자산형성 기금 조성**

현대자동차가 교통사고 피해 유자녀를 돕기 위한 후원금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전달했다.

현대차는 14일 영동대로 사옥 온택트 그라운드에서 남원오 현대차 국내지원사업부장, 장찬욱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본부장, 김영국 희망VORA 봉사단 사무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사고 피해 유자녀 자산형성 사업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현대차는 후원금 1억원을 전달했으며, 정부지원금과 유자녀본인 납입금을 합쳐 연간 총 3억원의 자산형성 사업 기금이 조성될 예정이다. 자산형성 사업 기금의 운영은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희망VORA 봉사단을 통해 매월 일정 금액을 유자녀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연간 119명 유자녀들의 교육비, 취업자금 등으로 사용되어 그들이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준 희망VORA 봉사단 사무국장(왼쪽부터), 남원오 현대차 국내지원사업부장, 장찬욱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본부장이 14일 영동대로 사옥 온택트 그라운드에서 '교통사고 피해 유자녀 자산형성 사업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적립된 후원금을 교통사고 피해 소외계층을 위해 쓰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관장 농구·배구 무료 관람 등 수험생 응원 이벤트 마련**

정관장이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수험생과 학부모를 응원하는 이벤트를 마련했다. 남자 프로농구단 '정관장 레드부스터스'와 여자 프로배구단 '정관장 레드스파크스'를 운영하는 정관장이 수험생을 위해 12월 31일까지 휴경기 에 한해 무료입장 혜택을 제공한다. 정관장은 이달 16일부터 22일까지 정관장 가맹점 및 직영점에 방문하여 수험표를 제시하면 부모님 건강을 위한 '화애락' 및 '홍천옹'에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신원선기자 tree6834@

**기아, 인증중고차 상품성 높인다**

**한국타이어와 타이어공급 협약**

기아가 내연기관 차량과 전기차까지 인증중고차 상품성을 높인다.

기아는 14일 브랜드 체험관 '기아 360' (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한국타이어애펀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와 인증중고차용 타이어 공급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권혁호 기아 부사장, 박중호 한국타이어 한국사업본부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갖고, 고품질 인증중



권혁호 기아 국내사업본부장 부사장(왼쪽), 박중호 한국타이어 한국사업본부장이 14일 브랜드 체험관 '기아 360'에서 인증중고차용 타이어 공급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차 제공을 위한 타이어 공급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기아는 이번 협약을 통해 중고차를 매입해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타이어 교체가 필요한 차량에 한국타이어 메인 브랜드 제품을 장착한다. 승용차와 SUV 차량에는 각각 한국타이어의 세계절용 밸런스 타이어 '키너지 ST AS(Kinergy ST AS)'와 온로드용 SUV 타이어 '다이나프로 HL3(Dynapro HL3)'가 장착된다. 전기차 모델 'EV6'에는 전기차 전용 타이어 '아이온 에보 AS(iON evo AS)', 고성능 스포츠 세단 '스텔라'에는 초고성능타이어 '벤투스 V12 에보 2(Ventus V12 evo 2)' 등 차량의 종류와 성능을 고려한 타이어를 장착할 예정이다.

**인사**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11월20일자) △미래전략담당관 부이사관 백승호 △부동산투자제도과장 과학기술서기관 김승범 ◇과장급 전보(12월2일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환승과장 과학기술서기관 홍성준

**부고**

▲최홍주씨 별세, 김금덕씨 남편상, 최종걸(췌HQ 이사)·도요스님·최종봉·최승씨 부친상 = 전남 영광군 영광읍 영광종합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7일 오전 8시 30분. 061-350-8044

# 혼란 예고하는 부동산 시장



이수준의  
부동산 수첩

한국 부동산 시장에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분수령이 되고 있다. 전쟁에는 돈이 필요하기 마련이고, 세계 경제가 합리적 기준을 마련한 지금은 2차대전 때처럼 돈을 찍어 낼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금리는 오른다. 연준에서 금리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국채로 인해 시중의 유동성이 흡수되는 만큼 시장금리와 차이는 더 벌어질 수 있다. 우리 경제와도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럼에도 최근 수도권에 한정해서 집값은 반등하기 시작했다. 최근 기준금리가 올라오는 동안 국고채 금리와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그렇지 않았다. 사람들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측을 한다. 기준금리도 곧 인하될 거라 기대한 사람들은 다시금 빛을 내서 집을 사기 시작했다.

여기에 정부의 '특례보증자리론' 효과

도 겹쳐졌다. 소득에 상관없이 9억원 이하 주택에 저금리 혜택을 발표하자 무주택자인 서민들 사이에서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이야기가 돌게 된 것이다.

인센티브 정책은 저소득층을 위한 것인데 소득이 아닌 집값으로만 기준을 정했다니 중산층들이 반응했다. 거기에 1가구2주택의 양도세 완화까지 효과를 더했다. 이제는 기준금리의 한걸음 뒤에서 국고채 금리와 주택담보 이자가 빠르게 오르고 있지만, 청년층의 '영끌'이 다시 시작된 것이다.

게다가 집값의 본격 상승이 시작되기 직전인 2010년대 중반 집을 샀던 상당수 1주택자들은 이미 열매를 맛본 만큼 더 큰 평수로 옮겨타는 것을 꿈꾼다. 전세 사기 현상으로 인해 다세대주택에 한계를 느낀 사람들은 전세든 매입이든 아파트로 시선을 돌렸다. 부동산 양극화를 경험한 지방 사람들은 경기권으로 들어오고, 경기도 주민은 서울로 들어오고자 한다. 그래서 지금은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외곽에 거주할수록, 또 청년층일수록 부동산 투자에 큰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양한 예측들이 오간다. '지금 내 집 마련의 적기이다', '곧 상승세가 꺾이는 때가 적기이다', '그 이후에는 주택 신규 공급물량의 부족으로 다시

오른다', '그 후에 1기 신도시 재건축이 현실화되면 다시 떨어진다.' 이러한 예측들은 얼마만큼의 의미가 있을까? 한번 사면 수십 년을 살 집 일 수도 있는데, 등락이 반복되는 시장에서 단기간의 예측이 큰 의미가 있을까? 지금의 국내외적 불안요소가 나타나지 않을 것인가?

오히려 이러한 상황에서 대규모 개발업자들은 선불리 움직이지 않고 있다. 주택이나 상가 개발업자들은 지난 하락기 동안에 어려워진 부실 사업장들로부터 저렴한 토지들을 사들여야 사업성을 올릴 수 있다.

그런데 정부가 부실업자들의 대출 기간을 연장해주고 이자도 납입 조건도 완화해 주었다. 고통스럽지만 시장의 자연적인 체질개선 작용도 있는 법인데, 이 같은 시혜성 정책은 총선 이후의 은행권 부실과 신용 경색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진짜 시장을 볼 줄 아는 개발업자들은 지금의 토지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보는 것이다. 이로 인해 현재 신규 아파트 공급 부족으로도 이어지고 일부 지역은 집값이 반등하는 사유가 된다. 그럼에도 여력이 있는 개발업자들은 당분간은 기다릴 것이다. 주식 시장으로 치자면 개미와 기관의 시각차라고도 볼 수 있다. /로이에아시아컨설팅 대표

## 바야흐로



기지수첩  
박정익  
(유통&라이프부)

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이 돌아오고 있다. 각 정당들은 총선거확산 등을 구성하며 제22대 총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선과 총선 등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현상도 있다. 바로 인재영입이다. 국민의 힘은 지난 2일 인재영입위원회를 발족시켰고, 더불어민주당도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인재위원장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좋은 인재'를 각자의 당으로 영입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도 시작했다.

정치권에서의 인재영입은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겸비한 성공한 인사들이라는 점과 외부 인재들이 당내로 들어

오며 새로운 바람을 이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영입된 인재들이 '좋은 정치'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와 함께 영입인사들에 대한 부실 검증 논란도 선거 때마다 반복된다.

지난 21대 총선을 앞둔 당시에도 각 정당들은 각자의 이야기가 있는 외부 인재들을 영입하고, 대대적으로 발표까지 했다. 그러나 일부 영입인사들의 '갑질', '미투', '논문표절' 등 대형 의혹들이 연달아 불거지며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정치는 종합예술의 집합체다. 수많은 이해 및 갈등 관계를 조정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성과를 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각 정당 내 각종 상설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비롯해 기초의원, 광역의원 등의 영역과 정당의 당직자, 의원실 보좌진으로 많은 경험을 쌓은 인재들의

발탁이 실제 정치영역에서 작동되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이들이 현장 정치를 통해 국민의 고난한 삶을 목도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각 정당들은 당내에서 육성된 인재들을 발탁하는 것도 진지하게 고민할 시점이다.

아울러 이제부터라도 당내 인적기반을 제대로 갖출 수 있는 육성 시스템을 통해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고 헌신할 인재들을 키워내야 한다.

국민의힘도 인재영입위원회를, 더불어민주당도 인재위원회를 꾸렸다. 인재영입이 새로운 피를 수혈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일이지만, 못지않게 내부에서 치열하게 성장한 인사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수 있지 않을까.

/pathfinder@

오늘의 운세 11월 16일 (음 10월 4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가랑비에 옷이 젖는 줄 모르고 지출. 48년생 기대가 너무 높아 만족도가 낮다. 60년생 열심히 하다 보면 기회가 주어진다. 72년생 타인의 시선에 얽매어 발전이 더디다. 84년생 여럿의 견해가 다들 옳지만 의견통일.



37년생 비대해진 자이는 자신을 위험에 빠뜨린다. 49년생 발등을 찍는 건 도끼 탓이 아니라 내 탓. 61년생 행복은 주변에 있으니 식구들을 잘 챙기자. 73년생 풍요가 기대된다. 85년생 맑은 거울과 조용한 물처럼 형성되는 기술.



38년생 어디서 부는 바람이 근심을 견어간다. 50년생 주변을 확고히 해야 인연도 이어진다. 62년생 실력이 부족하니 마음이 편치 않고 몸은 힘들다. 74년생 요행수를 바라지말라. 86년생 덕을 배부는데 스승이 따로 있었는가.



39년생 십년간 모아 둔 비상금이 적절하게 쓰인다. 51년생 인생이 어찌 흘러갈지 아무도 모른다. 63년생 머지않아 새벽이 올 것이다. 75년생 농친 고기를 안타까워 마라. 87년생 말이나 행동의 앞뒤가 맞지 않아 오늘날 가난한 것.



40년생 선부른 증여는 결정하고 후회한다. 52년생 하나를 뿌리고 세 개를 얻는 날로 기쁘다. 64년생 불만이 있어도 크게 내색하지 말아야 결과가 무난하다. 76년생 불을 보듯 뻔한 거짓말에 조심. 88년생 어떨든, 기사화생이다.



41년생 진퇴양난의 경우라도 길이 열린다. 53년생 돌다리도 두드리고 아는 길도 물어서. 65년생 머리만 민다가는 일을 그르친다. 77년생 달빛이 비치는 것을 훑볼 삼아서 공부할 것. 89년생 명예와 재물을 한꺼번에 얻는 날이다.



42년생 물고기가 물을 만나는 격. 54년생 직원을 보살피야 만사가 편하다. 66년생 입이 경솔하면 될 일도 틀어진다. 78년생 부자의 시작은 신용에서 비롯되니 약속을 어기지 마라. 90년생 가족이 화합이 안 되면 대립과 반목이다.



43년생 세상이 온통 상진벽벽으로 변해간다. 55년생 자녀에게 지나친 간섭은 관계를 악화시킨다. 67년생 주변에서 고마움의 선물이 들어온다. 79년생 남중지추라 했으니 분발하라. 91년생 누구나 자신의 단점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44년생 늦은 투자는 길이 아니면 가지 않는 것이 상책. 56년생 도움을 주고 대가를 바라지 마라. 68년생 일시적인 알은대는 멀리하도록. 80년생 선봉에 나서게 되니 주변에서 인기. 92년생 고양이에게 방을 다는 것처럼 어려운 일진.



45년생 배우자가 나에게 큰 조력자. 57년생 옛 연인을 꿈에도 그리워 잊기가 어렵다. 69년생 용이 여의주를 얻는 격이니 원하는 바를 무사히 달성한다. 81년생 재주 기술이 다양하다. 93년생 아무에게도 의지할 곳이 없지만 젊음이 있다.



46년생 남이 보기에는 요행수로 성공한 것 같으나 진정 노력을 했다. 58년생 미련해 보이니 신용이 우선. 70년생 재혼은 무리하지 말고 형편에 맞출 것. 82년생 가는 사람 붙잡지 말도록. 94년생 가계부를 써보고 돈 지출을 정리해볼 것.



47년생 도움 했던 사람이 다시 와서 나를 돕는다. 59년생 처음 먹었던 마음 그대로 간직하여 진행하자. 71년생 흐르는 대로 내버려 두자. 83년생 순리대로 일이 잘 풀리니 기쁜 날. 95년생 병법상의 최상책이 삼십육계라고 하지만 무책임일 수.



김상회의四季  
허언증

'리플리 증후군' 영화로도 나왔지만 가난한 집안 출신으로서 상류사회를 꿈꾸는 어떤 젊은이가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세탁하고 거짓 상류인사 행위를 하다가 결국은 비극적인 결과를 맞는 내용이다. 프랑스의 배우 알랑 들롱이 주연한 '태양은 가득히' 영화가 그 효시일 것이다. 리플리 증후군은 머리도 좋고 야망도 있으나 따라 주지 않는 현실을 상습적인 거짓말과 허언을 일삼으며 자신의 야망을 실현하려는 일종의 정신병이다. 대한민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세간을 놀라게 하는데 그에 비해 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아마 인터넷 소셜 미디어가 발달하지 않았으면 문혔을 사건일 수도 있겠다. 재벌그룹의 혼외자로 속이며 유명인과 결혼한다며 발생한 사건도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는 사실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리플리 증후군과 허언증이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왜곡된 윤리의식이나 허영심이 밑바탕이 된 것만큼은 사실이다. 미국에서도 예나 소로킨이라는 여자가 독일 출신 부유한 가문의 상속녀 행세를 하며 뉴욕 사교계에서 인기를 누리다가 딸미를 잡혀 감옥살이하고 나온 예가 있다.

재밌는 것은 자신을 향한 인터넷상으로 비난을 해댄 사람들을 역으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여 꽤 많은 금액을 챙겼다는 보도가 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세상살이다. 또한 법원에 출두할 때 입었던 의상 가방 등이 인기를 얻으며 해당 제품들의 매출이 늘어났다는 웃픈 얘기도 있다. 팔자의 구성이 신약(身弱)한테 칠살이 강하고 제살 되지 못하면 현실성이 없는 생각이 많으며 우울하거나 갑자기 기분이 들뜨는 식의 조울증 증세를 겪는다. 운운에서 받쳐 주지 못하면 심정팔구 허언증이나 리플리 증후군에 노출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과정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곳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6	2	8	3			9		7
		9		5				
				6		2		
2	9							
								4 2
	5		4					
9				9		7		
	3			8	2	6	4	

7				4	8			1
				6				
3			1	8				
9	2	1				3		
		4				2	5	8
				6	1			2
				8				
4		6	9					3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과정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QR코드  
할인도서

7	9	2	8	1	9	6	1	6
5	1	2	6	9	2	7	8	8
8	6	8	2	1	7	9	5	2
2	7	9	6	8	1	2	8	9
6	2	9	7	8	1	9	6	8
8	6	1	9	9	2	7	6	2
1	9	8	9	8	6	9	2	6
9	8	7	2	9	2	6	8	1
2	9	6	1	7	8	2	9	9

8	8	2	9	2	6	9	1	7
9	1	9	8	7	8	2	6	2
2	6	7	1	2	9	8	8	9
8	9	2	6	1	6	7	2	9
6	2	1	2	9	7	8	9	8
9	7	8	2	8	9	1	2	6
2	9	9	8	6	1	2	7	8
7	2	6	9	8	2	9	8	1
1	8	8	7	9	2	6	9	2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311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414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한계를 넘어라’... 게임에 만화까지 역대 최고 쇼 기대

오늘부터 19일까지 벅스코서 열려 42개국 1037개사 참여, 3328부스 야외 전시 확대... 다양한 이벤트도 ‘G-CON’ 화려한 라인업에 기대감↑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23(Game Show and Trade, All Round 2023)’가 오는 16일 부산 벅스코에서 정식으로 개최된다.

올해 19회째를 맞이한 ‘지스타 2023’은 한국게임산업협회(K-GAMES)가 주최하고 지스타조직위원회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공동 주관에 맡아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부산 벅스코에서 개최된다.

개막식에는 강신철 지스타조직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올해 지스타의 참가사 및 유관기관의 대표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고 ‘지스타 2023’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한다.

올해 지스타 슬로건은 ‘시야를 넓히라’는 의미의 ‘익스팬드 유어 호라이즌스(Expand your Horizons)’다. 기존 경험과 지식의 틀, 개인이 설정한 스스로의 범위 또는 한계를 상징하는 ‘호라이즌스’를 확장할 수 있도록 새롭고 창의적인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방향성을 담았다.

올해 지스타는 42개국 1037개사가 참여하는 가운데 전년(2947부스) 대비 12.9% 확대된 3328부스로 개최되는데, 과거 최대 규모였던 2019년(3208부스)를 넘어 역대 최대 성과를 기록하게 된다.

강신철 지스타조직위원회장은 “올해 지스타는 슈퍼얼리버드 신청 당일 제1전시장에 신청 가능한 BTC 대형부스가 소



부산 벅스코에서 열린 지스타2023 전경. /최빛나 기자

진됐고, 소형부스도 BTC관 및 BTB관 구분없이 7월 말 조기 마감되는 등 게임과 유관업계의 관심으로 최대 규모라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지스타를 향한 게임업계의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4일간 무엇보다도 안전한 환경 속에서 게임문화 축제를 모두가 만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스타 BTC관은 벅스코 제1전시장 전관, 제2전시장 1층 전체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작년 일시적으로 축소되었던 야외 전시의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제1전시장에는 위메이드, 구글플레

이, 엔씨소프트, 넷마블, 스마일게이트 알피지, 인벤, 크래프톤, 에픽게임즈 등이 참가하며 제2전시장 1층에는 웹젠, 뉴노멀소프트, 그라비티, AMD, 파우게임즈, 빅게임스튜디오, 하오플레이, 하이퍼그리프, 쿠로게임즈, 슈에이사게임즈(S HUEISHA GAMES)가 전시 부스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제1전시장 앞에는 위메이드, 구글플레이, 웹젠, 하오플레이, 세가 퍼블리싱코리아, 하이브로의 야외 전시 부스가 야외주차장에는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의 야외 전시 부스가 구성되어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이벤트와

불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작년 기록적인 성과를 달성하며 지스타의 핵심 부대행사로 자리 잡은 G-CON 2023은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벅스코 컨벤션홀 1층에서 개최된다.

지스타 단독 컨퍼런스로 진행되는 G-CON 2023은 작년 역대 최고 수준의 라인업을 뛰어넘는 화려하고 구성진 라인업을 통해 청중을 맞이할 예정이다. 올해 최고의 작품으로 평가되는 다양한 게임의 디렉터는 물론, 게임산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AI, 만화 등 다양한 영역의 주제 구성을 통해 청중의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인디 게임 업계의 실질적인 지원 환경 구축을 목적으로 지스타 인디 쇼케이스가 확대 운영된다.

또 올해에는 인디게임 플랫폼인 스토브인디아와의 협력으로 ‘지스타 인디 쇼케이스 파워드 바이 스토브인디’ 부스가 제2전시장 1층 BTC관에 마련됐다.

올해 지스타는 전시장 및 야외 이외에도 참관객들에게 더 많은 불거리와 편의 시설,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한다.

벅스코 이외에도 부산 주요 지역을 활용한 특별 이벤트가 준비된다.

‘지스타 2023’의 메인스폰서인 위메이드는 18일 저녁 8시부터 약 30분 간 해운대 광장과 해수욕장 일대에서 라이팅 드론쇼 & 불꽃 피날레를 진행하는 ‘위메이드 페스티벌 나이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에 불꽃 드론 총 800대를 동원해, 지스타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계획으로 오후 6시부터는 쓰레기를 채워 반납하면 선착순 1000명에게 어묵 꼬치를 제공하는 플로그깅(Plogging) 이벤트 등도 함께 진행된다.

/부산=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 유인촌 장관 “韓 콘텐츠 산업 이끌 게임에 힘 실어줄 것”

지스타 현장방문, 진행상황 등 점검 바우처 확대 등 해외진출 지원 약속 게임 정책, 불필요한 규제 해소 언급도

“14년만에 지스타 현장을 방문했다. 게임이 한국 콘텐츠 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겠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4년만에 ‘지스타2023’ 현장을 방문해 이 같이 밝혔다.

15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스타 2023 현장을 방문해 행사 진행 상황과 부스 전반을 사전 점검하고 ‘대한민국 게임 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시상하는 등 게임 현장 행보를 이어나간다.

유장관은 16일 정식 개막하는 지스타 2023 전날에 미리 방문해 기자들과 짧은 인터뷰를 통해 게임시장의 미래에 대해 언급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부산 벅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 2023에 방문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빛나 기자

유 장관은 “게임이 한국 콘텐츠 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의 발전

을 위해 게임 업계 관계자들에게 힘을 실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체부는 앞으로 역량 있는 게임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내년에 바우처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게임 인재원의 프로그램을 강화해 우수 인력을 양성하는 등 K 게임의 위상을 높여겠다. 현장 목소리에 집중하고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도 말했다.

또 유 장관은 올해 지스타 2023에서 가장 기대되는 작품으로 위메이드의 ‘판타스틱4’를 꼽았다. 그러면서 “최근 새로 출시된 게임 중 야구 게임이 가장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후 유 장관은 지스타 2023 현장 부스를 둘러봤다.

그는 “14년 전보다 우리나라 게임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을 보니 매우 놀랍고 자랑스럽다. 몇몇 게임은 직접 시연을 해

봤는데 시간가는줄 모르겠더라. 올해 지스타는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지는데 수 많은 관람객이 오실 예정이라 안전문제도 철저히 준비했다는 설명을 들었다. 지스타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게임산업도 더욱 발전할거라고 확신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현장에서 게임 진흥 정책과 불필요한 규제 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유 장관은 “국내 게임의 약점인 콘솔 게임을 집중지원하고, MMORPG 이외에 다양한 장르가 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디게임, 신기술 게임 등 제작자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확률형 아이템 시행령 등을 통해 업계와 이용자 간 공정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할 예정이다. 또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에 대한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도 밝혔다. /최빛나 기자

###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美 금리 내려갈 일만 남았다?빠르면 내년 초 늦어도 3분기  
▲“3주마다 최대 1조원”...美경제 기후 변화 피해 年196조원 /사진 뉴스스

▲이스라엘 “48~72시간 내 인질 석방 합의 가능성”  
▲美·中, 정상회담 앞두고 기후변화 대응 공동성명...“워킹그룹 가동”



▲“中 미완성 부동산 프로젝트, 컨트리 가든의 20배” /사진 뉴스스  
▲우크라, 트럼프 ‘우크라 스캔들’ 관련 정치인 반역 혐의 기소



첨단 삼성 vs 간단 LG  
가전혁신  
소프트웨어 승부수  
03



Life

글로벌 악재 속  
식품업계  
3분기 실적 날았다  
11



###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D-DAY

# “전자기기 모두 집에 두고 가세요”

총 50만4088명 수험생 응시  
휴대폰 등 소지만 해도 ‘부정행위’  
선택과목 푸는 순서 인지해야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둔 15일 인천 미추홀구 인화여자고등학교에서 한 수험생이 수험표를 확인하고 있다. /뉴시스

오늘 50만4088명이 응시하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된다. 해마다 수능에서는 ‘수능 시험 유의 사항’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부정행위가 다수 적발된다. 교육 당국은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탐구 선택과목 푸는 순서 등을 인지해 부주의로 인해 수년간 준비한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한다.

#### ◆ 시험장 반입 금지...시험 중 휴대 불가능 물품 확인해야

수능 시험장에서 부정행위 건수가 가장 많은 유형은 ‘반입 금지 물품 소지’다. 전원을 껐더라도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으면 부정행위에 포함된다. 블루투스 이어폰을 소지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스마트 기기, 태블릿PC, 블루투스 이어폰, 전자담배 등의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갖고 들어갈 수 없으며, 만일 반입 금지 물품을 시험장에 가져왔다면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쉬는 시간에는 휴대할 수 있지만 시

험 중 휴대가 불가능한 물품도 있다. ▲ 연습장 ▲개인 샤프(볼펜) ▲예비 표시용 플러스펜 ▲투명 종이 등은 휴대가 적발될 시 압수되며 ▲교과서 ▲문제집 ▲기출문제지 등은 적발 즉시 부정행위 처리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 ◆ 매 교시 타종 엄수해야

수능 시험에서는 매 교시 예비령·준비령·본령·종료령 순으로 타종이 울린다. 준비령이 울리면 문제지 상태 확인과 성명, 수험번호, 필적 확인 문구 기재 등의 행동만 가능하다. 준비령을 본령으로 착각해 문제를 풀다가 적발된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수험생들은 각 타종에 맞춰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종료령 역시 유의해야 한다. 시험 종료 후 감독관이 답안지 제출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 종료령 후 불필요한 동작으로 부정행위로 오인되는 경우 등 가장 많은 부정행위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4교시 응시 방법 위반 사례도 매년 발생하는 주요 부정행위 유형 중 하나다. 여러 선택과목 중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만 골라 풀어야 하므로 실수가 빈번하다. 대표적인 예로 선택과목 순서를 바꿔서 풀거나, 선택과목 문제지를 동시에 올려두고 푸는 행위는 불법행위로 간주돼 0점 처리된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 서울시, ‘밥상 물가’ 안정 위해 집중 점검

농수산물 30개 등 품목별 가격조사

서울시가 치솟는 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연말까지 시민 밥상에 자주 오르는 30개 농수산물 등에 대한 밀착 점검에 나선다. 60여 명의 시 소속 ‘물가 모니터링팀’이 100여개 전통시장을 직접 방문해 품목별 가격을 조사하면 시는 그 결과와 온라인 가격정보 등을 종합해 가격변화 추이를 분석, 물가안정대책 수립에 반영한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긴급점검은 정부의 특별물가 안정 정책 추진에 발맞춰 관련 부서가 합동 추진하는 대책의 일환으로 가격 급등 품목에 대해서는 정부합동 단속, 집중관리대상 추가 건의 등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공정경제담당관은 농수산물 가격모

니터링 및 전통시장 가격 현장조사에 임하고, 농수산물유통담당관은 가락농수산물 시장 도매 가격동향을 모니터링한다. 식품정책과와 자치구는 각각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과 가격표시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품목은 상추, 시금치, 배 등 농산물 24개와 조개, 굴 등 수산물 6개 등 총 30개다. 서울시는 폭넓은 관리를 위해 정부의 집중관리 품목(35개)과 겹치지 않은 품목들을 선정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지속 발굴·확대하고 시민 이용을 높일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착한가격업소는 업주의 신청서 자치구가 가격·위생·공공성 등을 평가해 지정한다.

/이현진 기자

### 서울 학생 문해·수리력 진단검사 받는다

4만5000여명 대상 기초학력 진단 오는 20일~24일 초등 4학년부터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학생 4만5000여 명을 대상으로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는 서울시의회 지원을 받아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새롭게 개발한 진단 도구이다.

학교에서 기초학력을 진단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도구는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학교 자체 개발 도구 등이 있으며 교과 기반 도구이다.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는 여러 교과를 학습하는 데 기반이 되

는 기초 소양인 문해력과 수리력을 진단할 수 있는 범교과적 검사 도구로 개발됐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검사내용은 일상생활과 학습상황에서의 문해력과 수리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되며, 교과융합형 문항이나 실제 생활에서 문제해결력을 측정하는 문항 등으로 출제된다.

진단검사는 약 210교의 표집 학교와 희망 학교,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2곳에서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등 4개 학년 학생 약 4만5000명이 실시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는 12월 말 학생 및 학부모에게 통보될 예정이다. 검사 결과 보고서에는 ▲문해력·수리력 검사 점수 ▲학생의 수준 ▲문해력·수리력 하위 영역별 도달도 등이 제공된다. /이현진 기자

##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최고액 190억

서울시, 체납자 1만4172명 공개 전자담배 제조업 김준업씨 2년째 1위

서울시가 지방세를 1000만원 이상 1년 넘게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1만417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에 새로 오른 체납자 중 세금을 밀린 사람은 개인으로, 체납액은 190억원에 달했다.

서울시는 15일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지방세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상태로 1년이 지난 고액·상습 체납자 1만4172명의 이름과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의 정보를 서울시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명단에는 기존 공개인원 1만2872명에 신규 공개인원 1300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이 밀린 세금액은 1조6413억원에 이른다.

신규 명단공개자 1300명 중 개인은 931명이 625억원, 법인은 369개 업체가 287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7000만원이다. 이들 중 738명은 서울시 체납액이 1000만원이 안 됐지만, 다른 자치단

체의 체납액을 더했을 때 1000만원 이상이어서 신규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기존 공개 대상자까지 포함해 세금을 가장 많이 밀린 체납자는 40세 김준업씨로 파악됐다. 김씨는 국내에서 전자담배 원료를 수입해 제조·판매업에 종사하면서 담배소비세 등 190억1600만원을 내지 않아 2년째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체납액 1위는 제이유개발로 이 법인을 113억22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이현진 기자

### 인천시, 지정문화재 보존지역 규제 완화

인천시의 지정문화재 보존지역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인천시는 시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 완화를 위해 인천시 문화재보호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 문화재위원회 사전분과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15일 밝혔다.

인천시는 시 지정문화재에 보존지역

을 녹지지역과 도시외지역의 경우 현행 500m에서 300m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제도가 도입된 2003년 이후 20년만의 규제 개선 성과다.

/인천=김대의 기자 dykimi@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12 | 해질 / 17:21

11월 16일 (木) 음력 : 10월 4일

수도권 날씨 6 ~ 8°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연천 3/8, 동두천 4/8, 가평 1/7, 파주 4/8, 서울 6/8, 양평 3/8, 인천 7/9, 수원 5/9, 용인 5/9, 평택 3/9, 백령도 9/10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MLB, ‘바람의 가문’에 관심 이정후·고우석 신분조치 요청 /사진 뉴시스  
▲KBO, 임찬규·양석환 등 FA 명단 공시...19일 협상 시작

▲류현진, ESPN 선정 FA 선발 최하위 등급...이정후는 호평  
▲손흥민, 또 무관에 그치나...토티, EPL 우승 확률 0.3%?



▲리버풀 디아스, 콜롬비아 반군에 납치됐던 아버지를 구함  
▲NBA 경기 중 난투극...그린·톰프슨·맥대니얼스 퇴장 /사진 뉴시스

